

정책연구 2008-4

## 농어촌 테마마을 활성화 방안

2008.7.

제주발전연구원

## 발 간 사

주5일근무제 도입 이후로 휴일 및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양적성장시대를 지나고 삶의 질적성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불어 증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한 1박2일의 체류형 관광도 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주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마을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과 국내 타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제주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테마마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도내의 농어촌 테마마을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한 단계이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을 발굴하여 프로그램화를 도모하여, 본 연구가 농어촌 테마마을 사업이 발전적인 모델로 만들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 7.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2.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개발사업 .....	6
2.1 농촌관광 .....	6
1) 농촌관광의 개념 및 특성 .....	6
2)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	9
2.2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테마마을 .....	10
1) 농촌지역개발사업 .....	10
2) 농촌체험마을 .....	15
2.3 외국의 농촌관광 .....	19
2.4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	25
2.5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	28
1) 중앙정부 차원의 기존 농촌관광정책의 평가 .....	28
2)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문제점 .....	29
3. 농어촌체험마을 사례분석 .....	34
3.1 사례지역 선정 기준 .....	34
3.2 농촌체험마을 사례 .....	35
1) 경남 남해군 다행이 마을 .....	35
2)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 마을 .....	40

3)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	46
3.3 어촌체험마을 사례	51
1) 전북 고창군 하전 갯벌체험마을	51
2) 경북 영덕군 대진1리 어촌체험마을	58
3) 경남 아동군 대도 어촌체험마을	62
3.4 시사점 도출	67
 4. 제주지역 일반현황 및 실태분석	70
4.1 일반 현황	70
1) 인구	70
2) 자동차 보유대수	71
3) 학생 및 고용자수	73
4) 경제활동	74
5) 산업별 총생산액	76
6) 관광산업	77
4.2 농어촌테마마을 현황	79
1) 체험마을 현황	79
2) 농어촌 테마마을 관련 행정조직	82
3) 농어촌 테마마을 사례지역 선정	83
4.3 체험마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84
1) 보목마을 사례조사	84
2) 강정마을 어촌체험마을 사례조사	88
3) 교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례조사	91
4) 신흥2리(동백마을) 농촌마을 사례조사	94

4.4 종합 평가 .....	99
1) 분야별 평가 .....	99
2) 발전 방향 .....	100
 5.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102
5.1 농어촌체험마을의 개선방안 .....	102
1) 농어촌체험마을의 개선방안 .....	102
5.2 정책제언 .....	110

## 표차례

〈표 2.1〉 농어촌지역 및 농어민복지지원 사업내역	11
〈표 2.2〉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사업	16
〈표 2.3〉 정부주도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 사업현황	16
〈표 2.4〉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중앙부처사업)	17
〈표 2.5〉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자체사업)	17
〈표 2.6〉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정책수단들	20
〈표 2.7〉 영국의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21
〈표 2.8〉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사업	24
〈표 3.1〉 다행이마을 체험활동	37
〈표 3.2〉 부래미마을 주요 추진사업	42
〈표 3.3〉 부래미마을 체험프로그램	44
〈표 3.4〉 개실마을 체험프로그램	48
〈표 3.5〉 개실마을 친환경농업관련 체험활동	49
〈표 3.6〉 하전 갯벌체험마을 개발 현황	53
〈표 3.7〉 하전마을 고유자원 현황	54
〈표 3.8〉 유형별 체험 프로그램	55
〈표 3.9〉 체험프로그램	59
〈표 3.10〉 체험프로그램	64
〈표 3.11〉 농촌테마마을 사례지역 시사점	68
〈표 3.12〉 어촌테마마을 사례지역 시사점	69
〈표 4.1〉 인구 및 가구수 증감 추이	70
〈표 4.2〉 자동차 보유대수 증감 추이	72
〈표 4.3〉 학생수 증감 추이	73

〈표 4.4〉 고용자수 증감 추이	74
〈표 4.5〉 1인당 지역총생산액 추이	75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현황	77
〈표 4.7〉 산업별 증자자수	77
〈표 4.8〉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현황	78
〈표 4.9〉 숙박시설 현황	78
〈표 4.10〉 전국의 체험마을 유형별 현황	79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역별 현황	80
〈표 4.12〉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81
〈표 4.13〉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도별 운영실적	81
〈표 4.14〉 교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92
〈표 4.15〉 사례지역 주요자원 및 발전방향	101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5
〈그림 2.1〉 농촌체험관광의 구성요소	8
〈그림 2.2〉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특징	10
〈그림 2.3〉 전국 어촌체험마을 현황	18
〈그림 3.1〉 다행이마을 전경	36
〈그림 3.2〉 다행이 축제와 모내기	38
〈그림 3.3〉 다행이 축제와 주요활동	38
〈그림 3.4〉 부래미마을	41
〈그림 3.5〉 개실마을 전경	46
〈그림 3.6〉 체험활동 참가 모습	50
〈그림 3.7〉 하전마을 현황	52
〈그림 3.8〉 갯벌체험 활동사진	56
〈그림 3.9〉 대진1리 마을현황	58
〈그림 3.10〉 마을 안내판과 관광안내소	63
〈그림 3.11〉 대도어촌체험마을 계획도	63
〈그림 3.12〉 대도마을 체험활동	64
〈그림 3.13〉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 조감도	65
〈그림 4.1〉 인구 및 가구수 추이	71
〈그림 4.2〉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세 및 차종별 분포비율	72
〈그림 4.3〉 제주도 경제활동인구 추이	75
〈그림 4.4〉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추이	76
〈그림 4.5〉 산업별 총생산액의 추이	76

〈그림 4.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가꾸기 조직 현황	83
〈그림 4.7〉 마을 위치도 및 제작기오름	84
〈그림 4.8〉 섬섬과 문섬	85
〈그림 4.9〉 자리돔축제 행사 현황(상), 테우체험과 모형 테우만들기(하)	85
〈그림 4.10〉 자리돔과 자리물외	86
〈그림 4.11〉 보말체험장	86
〈그림 4.12〉 마을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	88
〈그림 4.13〉 서간도 및 용천수	88
〈그림 4.14〉 어촌체험마을관광안내소 전경	89
〈그림 4.15〉 해산물직판장 및 작업장	89
〈그림 4.16〉 강정항 전경 및 소공원	89
〈그림 4.17〉 원체험장과 보말	90
〈그림 4.18〉 교래리 안내도(상), 마을전경·주민자치센터(하)	91
〈그림 4.19〉 종합복지회관 및 체험학습장	92
〈그림 4.20〉 두부만들기 체험학습장 내부	92
〈그림 4.21〉 제동목장 전입로 및 표지판	93
〈그림 4.22〉 동백나무 식재 가로수 및 동백나무 열매	94
〈그림 4.23〉 동백나무 자생지 안내판 및 자생지	94
〈그림 4.24〉 동백마을 안내지도와 마을내 소로	95
〈그림 4.25〉 동백열매와 동백보전연구회 현판	96
〈그림 4.26〉 동백마을 주민토론회 및 동백묘목 육증 모습	97
〈그림 4.27〉 동네 아이들이 그린 동백마을 지도	98
〈그림 4.28〉 마을내 체육공원 모습	99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양적성장우선시대를 벗어나 질적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휴식에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가구의 소득 증가 및 주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인해 주말시간을 어떻게 보낼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이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즉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관광<sup>1)</sup>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지역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위축되고 있으나, 최근 여가활용과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농촌관광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즉 전통문화, 자연경관, 농업생산활동 등 도시민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요소를 활용하여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중심의 여가활동은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관광은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농촌 주민 스스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신겸, 2007).

농산어촌체험마을은 기존 관광농업 형태의 관광농원이나 단순히 잠자리 만 제공하는 민박농원과는 다른 개념(오주열, 2000)으로, 산업화도시화로

---

1)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농어촌 체험관광은 농촌관광과 결합하여 고려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 체험마을을 포함하여 농촌관광으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농어촌은 농촌이란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상실되어 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직접 농촌경험을 통하여 선조들의 생활방식과 전통을 익히는 계기가 되며, 도시민들에게는 자연과 다양한 지역특성과 문화를 접하여 견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마을을 말한다.<sup>2)</sup>

2000년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농어촌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초기의 사업은 주로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활력 저하 등과 같은 근본적인 농어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나 소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마을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과의 네트워크 마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별 마을 단위 사업은 소규모 체험활동에 국한되므로 외부 또는 인접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다양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

---

2) 염봉훈, 농촌계획, 제12권제4호, 2006년,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분석(농촌관광 인터넷 포털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 및 주요 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노령화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인력(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젊은 인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이윤창출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다. 언어, 프로그램개발, 수익성 검토 등 1촌 1인 전문가 시스템의 도입 등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농촌관광이 더욱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되지 못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수익성 있는 농촌체험관광의 수요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농어촌관광이 대동소이한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도시와 근접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인접지역에 주요 관광자원이 있는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다소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서의 농어촌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농어촌 테마마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지역의 농촌관광 실태와 연구대상지 사례 분석 및 전국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도출하고, 지역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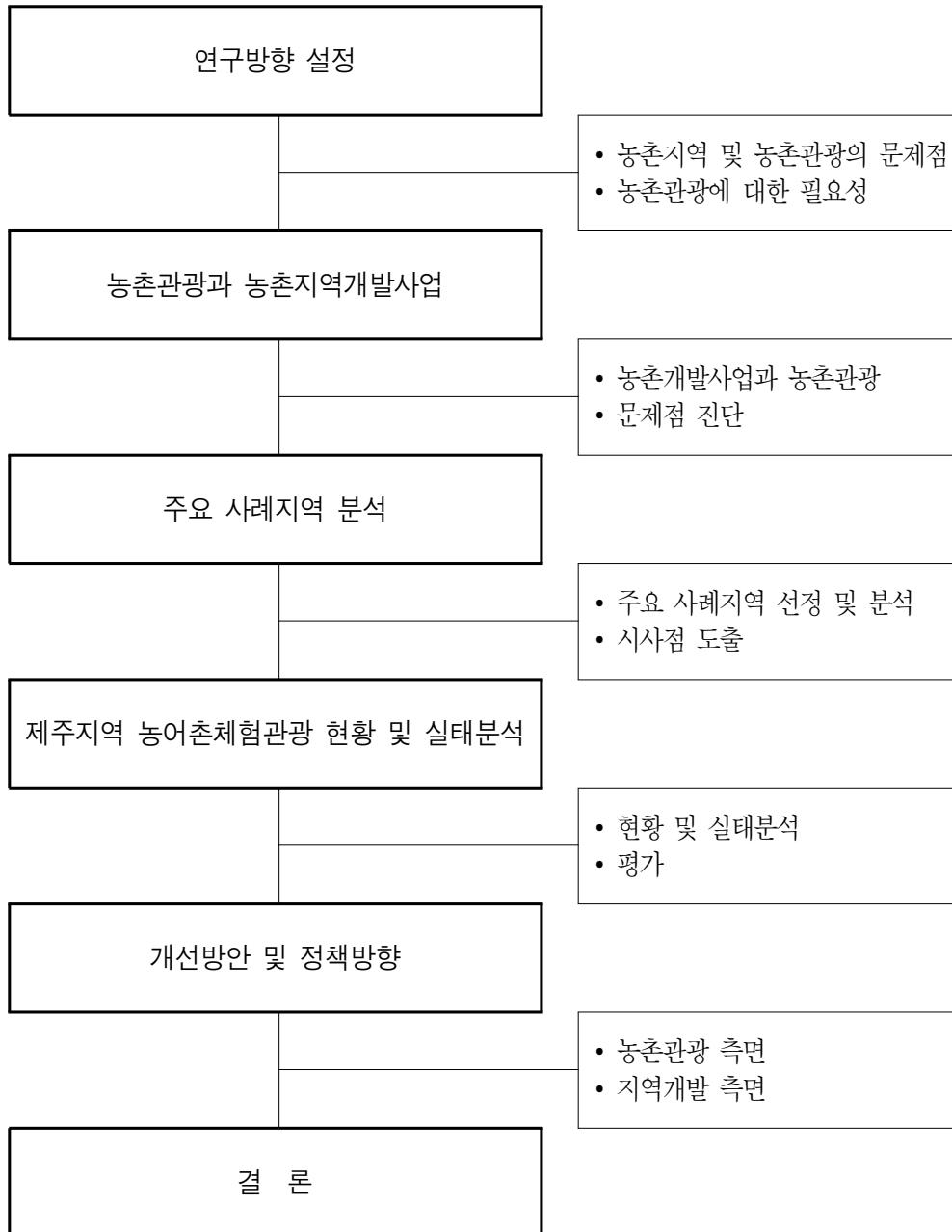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대상지역은 제주지역 농어촌 체험마을 4곳과 육지부의 6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지역 전체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제주시 교래리마을, 서귀포시 보목마을, 강정마을, 신흥2리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제주지역 농어촌 테마마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제주지역 농어촌 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례지역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제주지역의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수행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대상지역 조사 분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정립, 시대적 변화(농촌지역의 사회적 요구변화 및 농촌지역의 공간적 변화, 농촌정책변화), 농촌관광의 역할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사례조사에서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역인 제주지역의 농어촌 체험마을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지조사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마을중심의 하드웨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연구의 주대상지역인 제주지역은 물론 국내의 주요 성공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여 제주지역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 2.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농어촌의 정주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농외소득창출을 위한 체험관광 등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과 같은 농촌관광을 위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농촌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 2.1 농촌관광

#### 1) 농촌관광의 개념 및 특성

농촌관광은 사회적 여가행위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와서 중요한 관광형태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이름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마을단위로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유사한 사업이 사업명만 다르게 부처별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복·혼선·일시성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관광(Green Tourism)<sup>4)</sup>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결론내리기는 힘들

---

3) 충남발전연구원(2005),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p.7

4) 본 연구에서의 농촌관광은 농산어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농·산·어촌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요소가 다소 다르지만, 동일시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 국가별로 농촌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기준의 관광의 개념과는 다소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촌관광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Maestro, Gallegkl, & Requejo, 2007).

첫째,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활동은 농촌관광을 의미한다.

둘째, 농촌관광객의 주된 여행동기는 농촌의 삶의 방식이나 자연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관광의 체류기간은 1주일 이하로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농촌관광의 유형은 산업, 주체형태, 이용형태, 장소, 상품, 주체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산업에 의한 분류는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 관광형 등이 있고, 주체에 의한 분류는 민간주도형, 관주도형, 제3섹터 방식,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파트너쉽형 등이 있다. 이용형태에 의한 분류는 생산수단 대여형, 농산물 채취형, 이용장소 제공형 등이 있고, 장소에 의한 분류는 대도시근교형, 산촌 산림형, 농촌농지형, 목장형, 해변형, 기타자연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품에 의한 분류는 숙박체류형, 음식물판매형, 농산물판매형, 체험형 등과 주체기관별 분류로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별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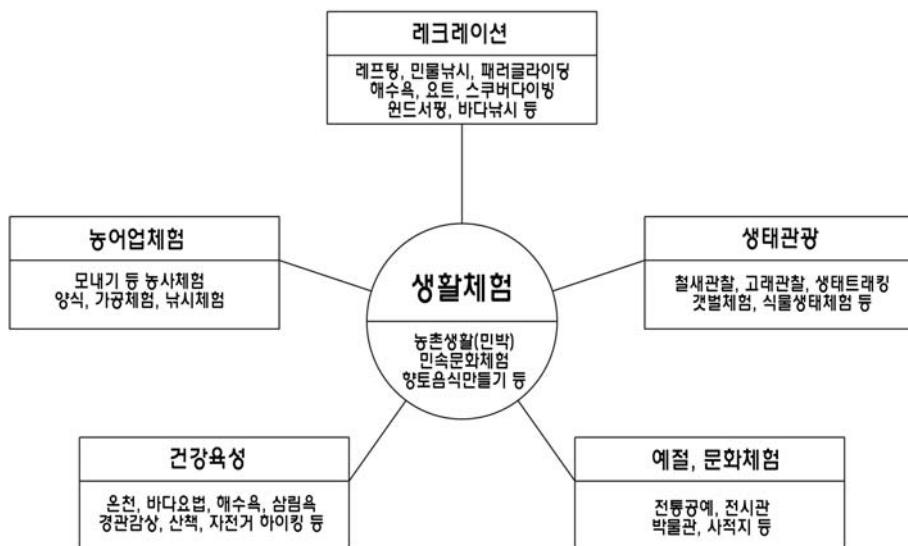
농촌관광을 다양한 유형 분류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유형을 농촌체험형, 어촌체험형, 생태체험 등으로 구분한 유형에 한정하고자 한다.

농촌관광의 특성은 기존 도시관광의 측면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관광이 상업적 관광에 주요 관심이 있는데 비해, 농촌관광은 정

---

5) 윤유식(2007), 강원도 지역 농촌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을 방문객 특성 및 선호도 분석, 강원발전연구원, p.7

주환경 및 지역공동체(커뮤니티)와 관련성이 높다. 이것은 농촌관광이 지역공동체 및 지역자원 및 문화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관광에 비해 소극적이고 소규모 시설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은 상업적 도시관광에 대한 대안적 관광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객과 주민간의 인간적인 친밀감과 교류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정주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1> 농촌체험관광의 구성요소

농촌관광이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면, 농촌관광은 상업적 접근보다는 마을공동체 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개성있고

생명이 있는 농촌과 농업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 2)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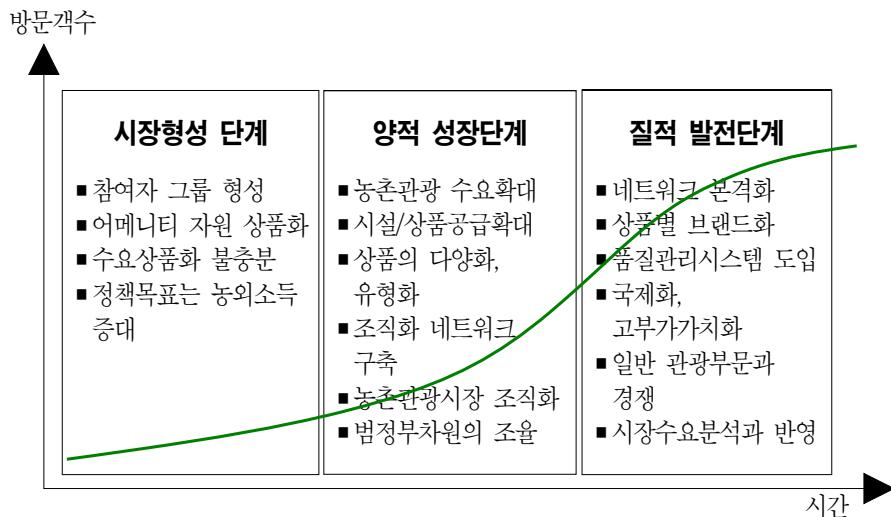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는 일반적으로 ① 시장형성초기단계, ② 양적 성장 단계, ③ 질적 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첫째, 시장형성초기단계는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촌어메니티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발견되지만, 공공부문의 관련 정책은 조직적 접근보다는 농외 소득 증대 등 특수한 정책목표 하에서 개별정책으로 시행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양적 성장단계는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한 공급자 그룹이 조직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농촌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유형화가 진행된다. 기존의 농외소득 증대에 목표를 둔 정책에서 농촌관광시장 효율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관광 관련 시책들이 조율되기 시작한다.

셋째, 질적 발전단계에서는 농촌관광은 네트워크화된 그룹별로 브랜드화가 이뤄지고, 브랜드의 품질관리와 유지를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된다. 관련 정책은 농촌관광 시장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공급체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

6) 오현석(2004), “주5일 근무시대와 농산어촌: 5. 서유럽 농촌관광의 발전과 시사점”, 국토 제272권 국토연구원, p.44



<그림 2.2>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특징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는 양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sup>7)</sup>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상품 자원화에 대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상품의 다양화나 유형화가 미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관련시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2.2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테마마을

### 1)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마을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과 농촌지역주민의 농외소득 확대 등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측면에서 별도로

7) 농촌관광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장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부문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양적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전행이 늦은 편으로 시장형성단계로서 현시기가 매우 중요함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시켜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각 부처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분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는 마을 개발,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지역산업에서는 체험관광에 한정된다.

<표 2.1> 농어촌지역 및 농어민복지지원 사업내역

사업 분류	해당 사업명	
농어촌 지역개발	마을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접경지역 지원*, 개발촉진지구지원*
	중심지개발	<b>소도읍육성사업**</b> ,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면단위개발	농촌정주기반화충사업**, <b>오지개발사업**</b> , <b>도서종합개발**</b>
	주거환경 정비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주택개량, 마을하수도정비),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개발보급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면단위 생활용수**, 농어촌생화용수*, 도서지역식수개발*, 마을단 위생활용수개발**, 면단위 하수도, 소하천정비,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 농촌폐비닐수거지원, <b>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신규)</b>
	교통여건	농어촌도로정비, 교통서비스강화, 국고여객선 건조
	정보화기반	<b>정보화마을조성*</b> ,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정보화인프라구축, 디지털어촌 및 어촌사랑방구축
	정보활용도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선정, 농업인관련정보제 공 확대, 사이버영농기술보급시스템 구축, 어업인정보화교육
농업의 복합산업 화와 지역산업	지역산업	향토자원소득화사업, 향토자원조사발굴 및 DB구축, 전남향토산업육성지원*, 특산단지전통식품 및 산지가공, 수산물가공사업*, 농어업인고용촉진훈련, 자리적표시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농업클러스터*, 지역연구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농업 클러스터기술개발지원*, 지역특화사업*, <b>신활력지역지원*</b> , 지역전 략산업진흥*,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농공단지조성*, 여성농업 인창업지원, 여성농업인소규모특화사업지원, 여성농업인생산제품 품질향상지원,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

<표 계속>

사업 분류		해당 사업명
농업의 복합산업 화와 지역산업	체험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장수건강마을, 아름마을, 문화역사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산림휴양공간 및 수목원조성**, 산림박물관조성**,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저수지수변개발, 농산어촌박람회개최, 농산어촌체험관광홍보, 향토문화관광축제 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구축, 농어촌휴양자원
	인적개발	인적역량 강화
	경관보전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산림자원보전관리*,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 자연휴양림조성**, 인공어초시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농어촌 주민의 교육 · 의료 · 문화 · 복지	도농교류	도농교류활성화기반정비, 도농교류참여프로그램마케팅, 도농교류센터운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업인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농어민연금관리운영비지원, 농작업재해보상지원, 어선원재해보상지원
	과학문화 복지시설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농어촌체육문화센터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 지방문화원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산림박물관건립
	의료기반 확충	농산어촌지역응급의료인프라확충, 공공보건기관기반확충,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실시설장비확충, 농작업환경개선, 농작업재해안전관리시스템, 안전영농구역조성
	영유아 및 여성복지	농산어촌보육시설확충, 농산어촌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농어업인영유아보육지원, 여성농업인창업지원, 생산제품품질향상지원, 전자상거래우편판매유지관리, <b>소규모보육시설(신규)</b>
	노인복지	농산어촌노인복지센터, 노인봉사활동프로그램,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기회 제공	농산어촌우수고교중점육성, 농산어촌실업계고특성화, 학교군구성, 적정규모학교육성, 복식수업교재개발, 원격교육컨텐츠개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방과후교육활동지원, 봉학캠프운영지원, 농산어촌공립병원병설유치원지원
교육비경감		농어업인고교생학자금지원, 농산어촌대학생학자금융자, 농과계대학생학자금보조, 초중고학생급식비지원, 자영고수산계급식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지원, 농산어촌교원근무수당,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현대화,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교육정보화인프라보급

주 : \*표시는 균특회계사업(38건), \*\*표시는 삶의질+균특회계사업(21건)이며, 진한글씨는 농림부이관대상사업(11건)을 의미함

자료 : 이동필 외 2인(2006),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마을단위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사업방식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과는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나타내고 있다.<sup>8)</sup>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시설, 경관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 지역 3~5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권역별 특성화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한 이유는<sup>9)</sup> 첫째,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선행 개발 사업만으로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액 분산투자로 인해 효과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만한 수단도 부족하였다. 셋째,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소득기반 창출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촌개발사업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 첫째, 권역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권역설정의 범위는 농촌공간정비 수단으로서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사업지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며, 대상권역 선정

8)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촌관광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 측면, 사업측면 등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주요특징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 중 최근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9) 송미령·김정섭(2006.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는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체계의 문제이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관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 혼란이 있다. 또한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여 일관되게 초기 기본구상에 따라 추진하기 어렵다. 기본계획, 실행계획, 실시설계 등의 여러 계획단계마다 참여자들이 모두 달라, MA(Master Architect:총괄계획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소득사업에 따른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다. 투자-집행-이익배분 단계별로 무임승차자가 생기기도 하고, 마을주민 중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한다. 또한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을 개발사업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면 공동체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조용하던 농어촌마을이 소득사업으로 인해 분열되고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성과를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완료단계는 아니라도 일정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대상권역의 사업 추진속도를 높여 그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타 사업 권역에 과급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계획수립에 장기간을 소요되고 있다.

이 사업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농촌관광 측면에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2) 농촌체험마을

정부 각 부처에서는 농촌관광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관련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며, 추진부처별로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내용, 보조금지원액 및 지원조건, 대상마을 요건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농림부에서는 2002년 '녹색체험마을'을 18개소 선정하였고, 2007년 현재 274개소를 선정·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도 2002년 '농촌전통테마을'사업의 일환으로 9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농협에서는 1999년 5월부터 '팜스테이마을'을 지정하여 2006년 현재 총 243개 마을 3,421가구의 농가민박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7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농촌관광 관련 마을단위 사업은 부처별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0)</sup>

이 외에도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5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 중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추진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직접적으로 농촌관광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업대상지에서는 내용적으로 농촌관광을 연계한 시설과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강신겸, 2007).

---

10) 현재 진행 중인 마을단위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매우 많으며, 사업추진 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어 온 농촌관광 관련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 해양수산부 업무 중 수산/어촌관련 부문)에서 대부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표 2.2>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사업

부처	사업명	지정방식 및 특징	사업비(국비)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방식,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2억원(1억원) •190개 마을 조성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가꾸기	공모방식,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	•10억원 이상(10억원) •23개 마을
농촌진흥청	전통테마 마을	공모방식, 테마를 주제로 마을 단위 농촌관광 추진	•1억원(5천만원) •40개 마을 조성
해양수산부	어촌체험 마을	공모방식, 어촌체험어장을 중심으로 어촌발전과 어업소득 증대	•5억원 내외 •49개 마을 조성
농협중앙회	팜스테이 마을	참여농가 5호 이상인 마을을 선정, 홍보·교육지원	•사업비지원 없음 •243개 마을 3,421 농가

<표 2.2>의 부처별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 인적 역량 강화, 농촌체험관광의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농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 정부주도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 사업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	146	64	118	141	153	187	810
농촌체험테마마을 (농진청)	9	18	18	21	31	34	141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18	26	32	47	67	84	274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부)	–	–	36	40	20	40	136
아름마을(행자부)	23	–	–	–	–	–	23
어촌체험마을 (해수부)	8	11	12	18	18	11	77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88	10	20	15	18	18	169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은 <표2.4>와 같이 11개사업에 80개(중복 선정포함) 마을이 선정되어 있다. 중앙부처의 추진부처도 6개이며 도의 추진부서는 7개이며 사업마다 지원되는 사업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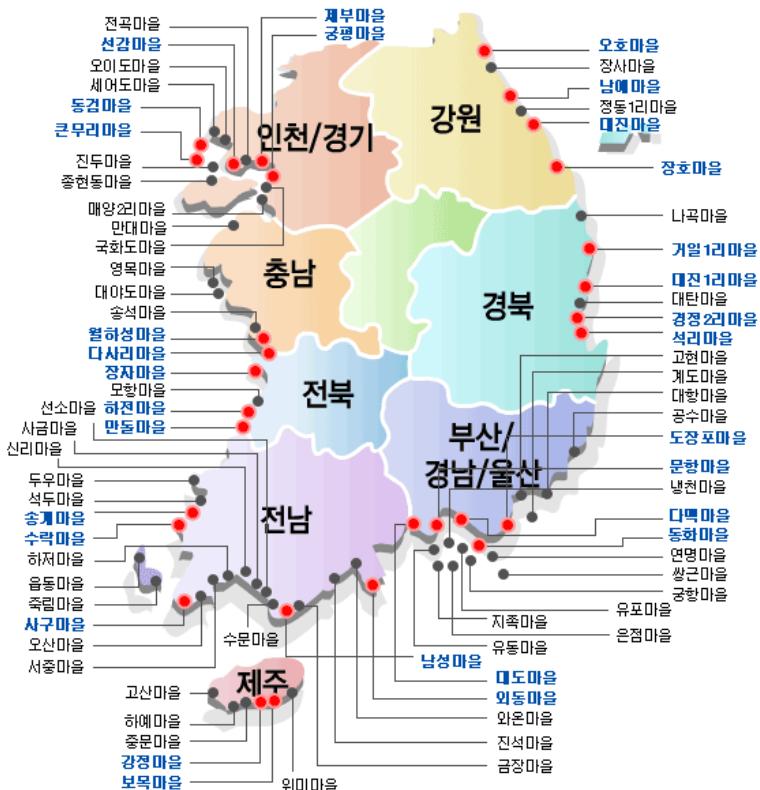
<표 2.4>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중앙부처사업)('08. 6월말)

사업명	중앙부처	도 추진부서	사업비	도내 선정결과
계(11개 사업)	6	7		80마을 (중복선정포함)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행정안전부	마을만들기팀	3년간 20억원	1마을(전국 30)
정보화마을	“	정보정책과	3억 내외	17마을(전국 338)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수산 식품부	마을만들기팀	5년간 50억내외	3권역(전국 132권역)
녹색농촌체험마을	“	“	2억원	10마을(전국 363)
어촌체험마을	“	해양자원과	5억내외	6마을(전국 87)
전원마을조성	“	농업정책과	10억내외	2마을(전국 70)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2~7억원	4마을(전국 170)
농촌건강장수마을	“	“	3년간 1.5억내외	12마을(전국 434)
살고싶은도시만들기	국토해양부	마을만들기팀	마을 1~3억원 도시 20억이내	1도시, 2마을 (전국 11도시, 45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환경부	환경정책과	환경사업 우선지원	10마을(전국 96)
농촌팜스테이마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연간 3천만원내외	6마을(전국 260)

<표 2.5>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현황(자체사업)('08. 6월말)

사업명	추진부서	행정시 추진부서	사업비	선정결과
계(6개 사업)	1	3		79마을 (중복선정포함)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제주시 행정기획과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마을당 1억원	‘08년 신규 (6개 마을 예정)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	제주시 행정기획과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센터당 15~40백만원	43개 전 센터 차등지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	제주시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마을당 20백만원 (‘07년 30백만원)	‘07년 20개 마을
베스트 특화마을 육성		제주시 행정기획과	마을당 5~20백만원	‘07년 27개 마을
농어촌지역 특화사업 육성		“	마을당 50백만원	‘08년 신규 (6개 마을 예정)
자립마을육성		서귀포시 자립마을육성팀	마을당 40~70백만원	‘07년 20개 마을

농촌체험마을 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은 지정된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주차장 설치 등 생활편의시설과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등 체험기반시설, 화단, 꽃길, 담장 정비 등 마을경관 조성,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 홍보비 등 기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사업과 토지·시설의 매입비, 임차비, 관리운영비, 농업생산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및 운영이 어렵고 지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여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출처 : [www.seantour.org](http://www.seantour.org)

<그림 2.3> 전국 어촌체험마을 현황

## 2.3 외국의 농촌관광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업이 추진된 지는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 온 해외국가들의 주요 농촌관련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에 대한 문제 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농촌관광관련 정책 및 사업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가 주로 농업경영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정비청(DATAR)은 국가-지역개발계약(CPER/ Contrat de Plan Etat-Région) 차원에서 각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광부는 CPER 계획차원에서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조직화와 상품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sup>11)</sup>

---

11) 오현석(2003.1), 프랑스의 농촌관광 추진체계, 지역아카데미 Agroinfo Issue No.9, p.2

<표 2.6>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정책수단들

제약요인	중점 개입분야	부서	내 용
•농촌관광 자원의 상호연계 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관광에 대한 고객수요의 분석과 변화내용에 대한 연구</li> <li>-농촌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가치화(Mise en valeur) 하는 문제</li> </ul>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9년 신 농업기본법하의 경영영토계약(CTE)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농촌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EU LEADER 프로그램을 비롯한 농촌개발 관련정책(PNDR : le Plan National du Développement Rural 2001~2006)을 주관함</li> <li>-농림부 주관하에 있는 농업교육분야에서 문화, 예술영역을 강화하고 있음(2002년 4월 농림부-문화부간 협의체 구성)</li> </ul>
•관광자원 분포의 고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문화유적, 마을의 특징, 기념물, 수공예 및 기수 등에 있어 농촌지역을 상징화시킬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활성화(animation)를 도모</li> <li>-농촌지역의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건물들에 대한 보수 및 숙박시설로의 이용</li> </ul>	국토 정비청 (DAT 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DATAR는 국가-지역개발계약(CPER)을 통해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 가운데 지역의 관광잠재력 개발계획 등을 지원하고 있음(하드웨어 지원)</li> <li>-프랑스는 '국토의 지속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기본법(1999.6.25)을 바탕으로 관광분야를 지역개발 위한 '지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2002~2006년 CPER 계획은 특별히 지역접근분야(Volet Territorial)를 설정해 농촌지역의 숙박시설개량, 관광관련소기업 지원,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li> </ul>
•관광자원 상품화를 위한 조직화 노력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품격 농산물의 개발과 이용,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지역활동가들의 협력을 통해 지방 고유식 단(assiette de pays)의 개발과 보급</li> <li>-농촌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을 통한 농촌관광 서비스 질의 향상</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공원(les parcs Naturels Régionaux)과 녹색공간(les Stations Vertes) 또는 '아름다운 마을(les Plus Beaux Villages) 계획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관광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li> </ul>
•농촌관광 수요의 계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관광에 대한 질적 수요의 증기에 대응한 농촌관광자원의 공급적 측면에서의 연계성 강화와 조직화</li> <li>-농촌관광자원의 정보화와 관광상품에 대한 대 고객 접근성 제고</li> </ul>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ER 계획차원에서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994~1999년 지역개발계획의 경우 농촌관광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는 국가가 17.53백만 유로, 지역(광역지방단체)이 19.06백만 유로를 지원했음. 이밖에도 프랑스 관광부는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의 조직화와 상품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li> </ul>

자료 : 프랑스 농림부 농촌관광자료, 2002

영국의 Farm Stay UK는 1983년 23개의 지방조직들로 이루어진 Farm Holiday Bureau는 영국 농림부와 국가관광위원회(NTB ; National Touristic Board)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1989년 농민들이 소유권을 갖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되었다. 2000년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1개의 지역에 90개의 소규모 지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Farm Stay UK의 목적은 ‘농업관광촉진’, ‘마케팅 및 판촉지원을 통한 회원농가들의 사업 확대’, ‘경영다각화를 통한 소득원 확대’에 있다.<sup>12)</sup>

2003년 현재 회원농가수는 B&B 농가(숙박과 아침식사 제공)는 663개, 자가취사형 농가 419개, 캠핑 농가가 19개, 병크하우스(Bunkhouse)가 3 개소로서 총 1,104개 농가가 있다. 서비스 유형은 B&B, 자가 취사, 캠핑, 병크하우스의 네 가지가 유형이 존재한다. B&B(기본)와 자가취사(추가), 자가취사(기본)와 B&B(추가), 캠핑(기본)과 자가취사(추가)를 부수적으로 겸하는 농가들이 있어 모두 7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영국의 농촌관광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구 분	정부기관 및 단체	역 할
중앙정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DEFRA)	-농민과 비농민을 포함해서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지원 -EU EAGGF 예산 담당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EU ESF 예산과 자체예산으로 농촌관광 지원 -대부분 ETC를 통해서 지원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DTI)	-EU ERDF 예산 담당 -Business Link나 Small Business service를 통해서 소규모 관광사업 지원

12) 오원석(2004), 서유럽 농촌관광의 발전과 시사점, 국토 제272권, 국토연구원, p.47

<표 계속>

구 분	정부기관 및 단체	역 할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Government Regional Offices)	-총 9개 지역에 있음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수행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농촌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Local County Council -District Council	-총 34개의 County council과 245개의 District council이 있음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정부관련 기관	-지역발전청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	-지역별로 구분된 총 10개의 RDA가 있음 -지역발전전략의 수립에 중추적 역할 -EU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발전예산을 확보, 각 프로그램에 분배하는 역할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수립, 시행하기도 함
정부관련 기관	-잉글랜드 관광협회 (English Tourism Council: ETC)	-DCMS나 다른 정부부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아서 실행(project base)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역관광 협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음
	-영국관광협회 (British Tourist Board: BTA)	-주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최근 ETC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지역 관광협회 (Regional Tourist Board: RTB)	-총 10개의 지역관광 협회가 있음 -ETC와 협력해서 지역 농촌관광사업지원 -지방정부나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별도의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특히, EU 구조기금의 목적 1, 2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짐
	-전원관리청 (Countryside Agency: CA)	-DEFRA로부터 주로 예산 지원을 받음 -농촌관광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존에 중추적인 역할
	-국립공원(National Parks)	-영국 전체에 총 10개의 국립공원이 있음 -각 국립공원별로 해당지역단체들과 협력 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농촌관광업을 지원하고 있음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음

<표 계속>

구 분	정부기관 및 단체	역 할
민간단체	-비즈니스 링크 (business Link)	-DTI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농민과 비농민의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관광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지원함
	-농업경영컨설턴트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 ADAS)	-농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업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평가 등 상담, 조언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함 -농촌관광지원 프로그램에 다른 단체와 파트너쉽을 형성, 지원함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농촌관광 및 경관보존에 관한 가장 큰 민간단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갖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막대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농촌관광업을 지원하기보다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수행함
	-농장관광협회 (Farm Stay UK)	-농장관광사업을 하는 농민들의 연합체로 기존의 Farm Holiday Bureau임 -지역관광협회와 협력해서 회원업체의 소개 책자나 선전을 출판함 -공동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영국 리조트 협회 (British Resort Association)	-영국 리조트에 대한 공동 선전물 출판
기타	-직업훈련 및 기업위원회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 TEC)	-중소규모 관광업자들에 경영상담, 정보제공과 관련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TEC 자체에 ERDF나 ESF로부터 지원된 예산이 있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PP.16-17

일본의 농촌관광(Green Tourism)은 유럽국가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휴일 수가 적기 때문에 체류형보다는 경유형 관광이라는 점과 도시와 농촌교류를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경유형 관광 중심은 농가 민박보다는 농·특산물 판매와 작은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도시민 입장에

서, 농촌주민 입장에서의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이득을 강조하고, 쌍방 간의 다각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만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표 2.8>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사업

부서	관련사업	부서	관련사업
농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자원활용 농업구조개선사업</li> <li>•‘농산어촌에서 여유있는 휴가를’</li> <li>•중산간도시교류형 거점정비사업</li> <li>•중산간지역 활성화 추진사업</li> <li>•산촌진흥 등 농림어업특별대책사업</li> <li>•자연휴양림</li> </ul>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국정공원시설정비</li> <li>•국민휴가촌·고향자연공원 국민휴양지</li> <li>•자연체험체류거점정비(에콜로지캠프)</li> <li>•자연환경 보전활동 거점 정비사업</li> <li>•만남인식 온천지 정비</li> </ul>
임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업지역 종합정비사업</li> <li>•자연휴양림</li> <li>•휴면·그린 플랜</li> <li>•‘산촌에서 휴가를’ 특별대책사업</li> <li>•푸르름과 만남의 마을 정비 특별대책사업</li> <li>•‘풍요로운 삼림조성사업’ 중산간 유향</li> </ul>	국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신회복(refresh) 고향’ 모델사업</li> <li>•‘고향 C&amp;C’ 모델사업</li> <li>•‘과소화 지역에 고향마을’ 모델사업</li> <li>•‘고향경관’ 추진모델사업</li> <li>•커뮤니티 아일랜드 추진사업</li> <li>•산촌도시 교류환경 종합정비모델사업</li> <li>•과소지역체류시설정비 모델사업</li> </ul>
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도소리마을21 모델사업</li> <li>•광역어업 활성화 구조개선사업</li> <li>•새롭고 아름다운 어촌조성 모델사업</li> <li>•마리노베이션 거점교류 촉진종합정비</li> <li>•어항교류광장 정비사업</li> </ul>	자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조성 특별대책사업/종합사업</li> <li>•선도(leading) 프로젝트</li> <li>•젊은 층 정주촉진 등 긴급 프로젝트</li> </ul>
문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소지역 스포츠 교류사업</li> <li>•농수성과 제휴사업</li> <li>•메아리학원 교류사업</li> </ul>	통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소규모사업 활성화 추진사업</li> <li>•지역중소기업 대책사업</li> <li>•전원(電源)지역 산업육성 지원보조금</li> </ul>
운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캠프촌(자동차여행 시설 정비)</li> <li>•가족여행촌</li> <li>•청소년여행촌</li> <li>•항만 레크레이션 시설</li> <li>•국제교류촌(국제교류거점시설 정비)</li> <li>•마린·타운·프로젝트</li> </ul>	건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 휴게시설 사업</li> <li>•연안공동체(coastal community zone)</li> <li>•컨츄리 파크 정비사업</li> <li>•리조트 파크 정비사업</li> <li>•레크레이션 호수 정비댐 사업</li> </ul>

자료 : (재)21세기 마을가꾸기 모임 편(1998), 그린투어리즘의 계획과 실천, PP.17-30

일본정부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사업은 <표 2.8>과 같고, 정책적 지원은

1992년 6월에 공표된 신정책에서 아름다운 농촌 공간 형성에 기여하는 그린투어리즘의 진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995년 4월 농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농업체험, 민박 등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여 여유 있는 국민생활을 확보하여 농촌지역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7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농촌의 진흥과 함께 국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의 그린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노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sup>13)</sup> 첫째, 시정촌(市町村) 장의 인정을 받은 계획에 대해서는 농작업 체험시설 등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응자를 제공한다. 둘째, 시정촌 계획이나 농업인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언이나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셋째, 도·농간의 이해와 공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민 연계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천적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은행,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생협 등과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 체제 정비에 주력한다.

## 2.4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최소 생활기반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

13) 김강래(2004),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농가소득정책 방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24

점이 노정되고,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 정비에 지나치게 치우쳐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접근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단위 또는 개발단위에 대한 최소 지원에 따라 지속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단편적 사업 및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강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문제점을 기준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농촌관광은 농외소득 증대 등 특수한 정책목표 하에서 개별정책으로 시행되는 수준에 거쳐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관광 관련 사업이 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 외에 체계적인 관광산업으로서 성장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지역적 과급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향식 사업추진에 따라 마을·지방의 독자적인 계획수립이 어렵고, 자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상부기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둘째, 소지역 단위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접근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관광 사업이 주로 소지역단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반조성 이외에는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관

광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적 차별화나 특성화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소규모 마을단위의 접근은 지역적으로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에 의해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적 차별화나 특성화를 실현하기 힘들다. 일부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소수의 지역은 지역적 차별화나 특성화를 잘 구현한 것이 성공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운영·관리상의 문제이다. 추진된 사업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이 있다. 소규모 마을단위의 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위를 중규모하여 최소한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 의식부족에서 나타난 주민의 사업 참여 등 내부적인 이해대립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sup>14)</sup>

다섯째, 체험프로그램의 문제이다. 농촌관광, 특히 농촌체험마을의 경우 도입시설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차별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촌관광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프로그램(콘텐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이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가지면서도 독특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은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됨으로써 테마마을만의 독특한 수익성 모델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14) 서정호(2006)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행정의 하향식 사업추진 및 처리지연(26.1%), 마을주민간의 갈등(24.8%), 마을과 행정간 의견대립(18.0%), 마을 내 사업추진인력부족(16.7%)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애요인은 행정과 같은 외부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sup>15)</sup>

### 1) 중앙정부 차원의 기존 농촌관광정책의 평가

기존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농촌 관광자원 개발은 ① 시설 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하는데 소홀, ② 농촌주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실 경영을 초래, ③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하는 의의를 살리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었다. ① 기존 농촌관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IMF 등의 경제 사정으로 농촌 관광 시장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경제사정 호전과 함께 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② 기 조성된 관광농원 등의 물리적 시설물은 농촌지역에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③ 그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적한 경영 노하우, 이미 만들어진 조직,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은 농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관광농원협회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등급제, 경영주 홈페이지 작성, 협회 주관교육, 팜스테이 농가(관광농원, 민박, 팜스테이 농가 중 일부는 중복)들의 자체 모임활동 등은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주의 경영능력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5)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이승형, 2006, 전북발전연구원, pp49-53

## 2)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문제점

### 체험마을 사업의 정책적 문제

#### ①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농촌 전체로는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정책의 통합성도 확보하기 곤란하다.

#### ② 하향적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편중

대부분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은 사업내용, 사업방식, 추진일정, 사업지구선정 등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또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 창의력, 개발수요 등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거의 모든 개발사업이 생활기반시설을 비롯한 물적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 고유의 환경, 경관, 문화, 향토자산 등과 같은 특성자원을 살리는 장소판촉, 이벤트 등 소프트한 비물리적 개발은 간과되기 쉬운 문제도 있다.

#### ③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중복성

체험마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사계획 및 사업이 중복되어 시행되는 반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부족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이 곤란하다.

부처간은 물론 부처내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개발사업들이 상호 연

계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는 유사한 사업이라도 사업방식, 사업일정, 투자재원 등을 서로 달리하는 과편화된 개발(fragmented development)이 불가피하다.

#### ④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왜곡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지방정부 부담을 의무화하는 매칭펀드 방식(matching fund)을 채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로 인해 더욱 낙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 ⑤ 농산어촌체험마을 개발 역량 미흡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과 추진은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의 창의력과 지역주민들의 참여폭을 좁혀왔으며, 자주적·내발적 개발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각 체험마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의 대학 및 소규모 연구단체, 컨설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인력 및 노하우 등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농산어촌 체험마을 계획수립 및 구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시가 요구된다.

#### ⑥ 종합적인 추진주체의 미흡

광역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에 중계하는 수행하고 있을 독자적인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 서있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의 기능은 중앙부처와 매우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이 기획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에서도 각각 중앙부처의 계선에 있는 부처가 유사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고 중앙부처가 다르면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조차 사업이 분절된 채 추진되는 문제가 있다.

#### □ 체험마을 사업운영상의 문제

##### ① 사업내용의 유사

각 체험마을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체험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등이 마을간 비슷하게 조성되어 도시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인(動因) 및 경쟁력이 결여되어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은 공통적으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부인 체험관광 상품의 경우도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수요와 더불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림부를 비롯한 5개 부처에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에 관한 통합지침』<sup>16)</sup>을 마련하여 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 통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을 사업간의 특화, 연계 및 조정을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16)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6.1

## ②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현재 체험마을 운영은 몇몇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가의 빙방이나 빙집을 이용하여 도시방문객을 유인하는 민박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다. 농촌마을 주변의 환경 및 경관 정비 등은 도시방문객 유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체험마을 내 대다수 농가의 참여가 없이는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워크샵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일부의 마을지도자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농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③ 체험마을간 네트워크 미흡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부전문가들로부터는 자문을 받고 있으나, 체험마을 간의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선진기법 등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민박과 직거래, 농촌체험 등에 대한 운영방법 및 창업정보 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마을 지도자들은 체험마을 간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험프로그램 및 민박 등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시방문객에 대한 마케팅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

#### ④ 전문 운영자 부재

체험마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을 리더의 운영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마을이장 혹은 일부의 리더들이 마을에 봉사하는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⑤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체계 부재

개발부처가 지원하는 체험마을 지원사업은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업결과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체험마을 사업의 life cycle에 따른 종합적 평가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한편으로 체험마을 사업은 각 마을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에 따른 유인책 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방식이 필요한 상태다.

### 3. 농어촌체험마을 사례분석

#### 3.1 사례지역 선정 기준

제주지역의 농어촌체험마을의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다양한 사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 선정은 지역적 특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감안하여 각각 3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우선 농촌체험마을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수도권 및 인접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어촌체험마을은 지역적으로 동해안·서해안·남해안 지역에 각 1개소를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은 각종 경진대회나 평가대회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선정된 농촌체험마을은 경남 남해군 다랭이 마을, 경기 이천시 부래미 마을,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이고, 어촌체험마을은 전북 고창군 하전 갯벌 체험마을, 경북 영덕군 대진1리 어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대도 어촌체험마을이다.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는 계획보고서나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체험마을의 특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7)</sup>

---

17) 현장조사는 주로 마을의 현황 및 관련시설을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직접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조정 등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 3.2 농촌체험마을 사례

### 1) 경남 남해군 다랭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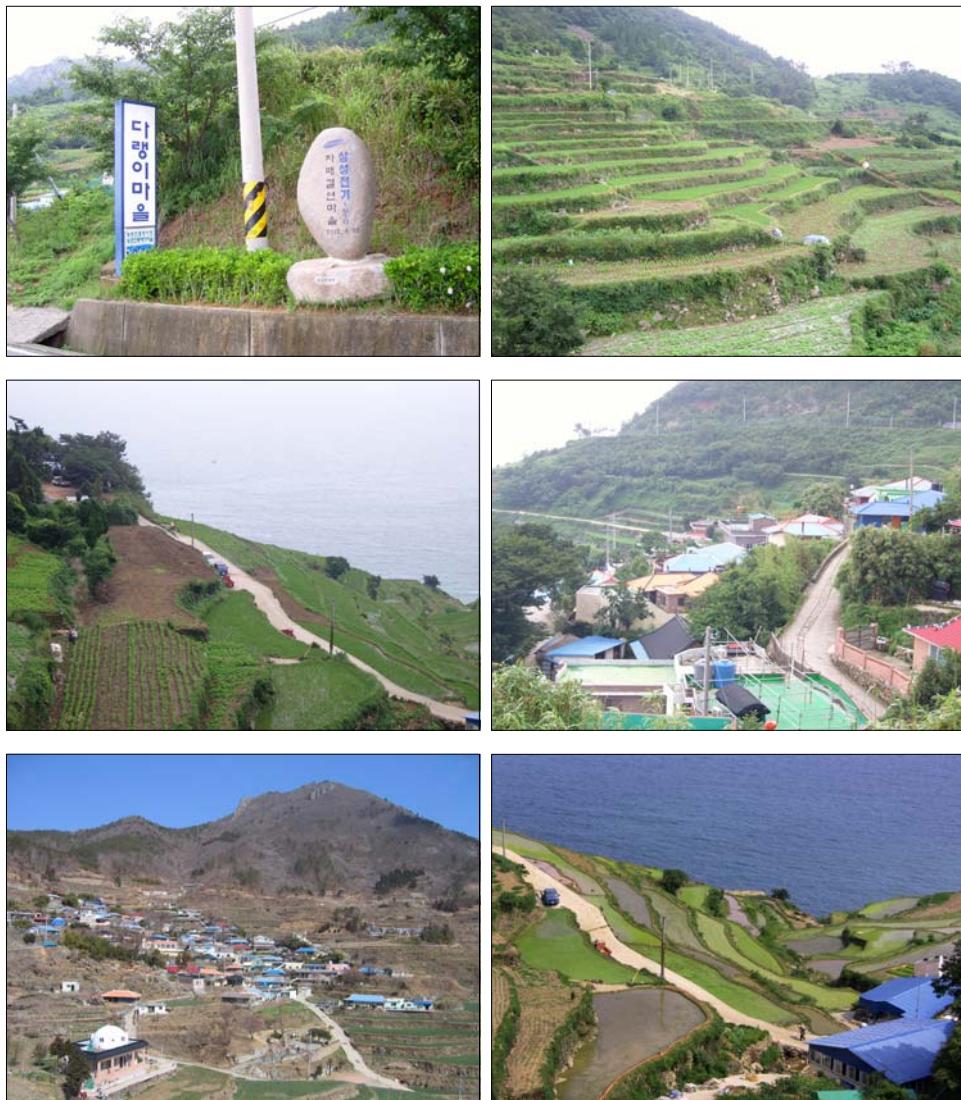
#### (1) 일반현황

다랭이<sup>18)</sup>마을은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에 위치하고, 58농가에 154명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의 작은 농촌마을이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배 한척이 없는 마을로 마늘과 벼가 주소득 작물이다. 남단에 위치해 한겨울에도 눈을 구경하기 어려운 따뜻한 마을로 쑥과 시금치 등의 봄나물이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곳이며, 해풍의 영향으로 작물의 병해충 발생률이 낮아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마을로서 아직도 개울에는 참게가 살고, 얼레지나 용담, 가마우지 등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지닌 마을이다.

다랭이 마을은 구석구석에 400여개의 다랭이 논이 있으며, 해안선에서 설흘산·응봉산 7부 능선까지 108층이 넘도록 계단을 이루고 있어, 이 마을의 다랭이 논은 삿갓을 씌우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삿갓배미’로부터 크게는 300평 넓이의 다랭이 논까지 존재한다.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와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던 것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마을의 주요자원은 다랭이 논과 해안절경·일출 등이다.

---

18) 다랭이는 다랭이의 사투리로 다랭이는 비탈진 산골짜기에 있는 총총으로 된 좁고 작은 논배미를 뜻함



<그림 3.1> 다랭이마을 전경

## (2) 체험활동

다랭이 마을의 체험활동은 다랭이 논과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랭이 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농사체험은 물론 축제까지 어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랭이 논 만들기, 모내기, 써래질 체험 등의

농사체험은 물론 마을의 동신제 등 다양한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다행이 마을의 농촌체험은 자연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행이 논에서 전통적인 농사기법을 이용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다른 농촌체험마을과는 느낌이 매우 다르다. 소를 이용하여 논갈이와 써래질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모내기를 하는 등 전통적인 농사기법을 체험할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표 3.1> 다행이마을 체험활동

월	명 칭	장 소
연중	몽돌 바닷가 산책	몽돌해변
	다행이 삿갓배미	마을주변 다행이 논, 밭
	농사체험	마을주변 다행이 농경지
	미륵불 일출	미륵불 주변
3~10월	다행이 만들기	마을 뒤쪽 휴경지
	다행이 새참	마을회관 아래쪽 다행이 논
3~11월	추억의 시골학교	마을 옆 폐교
7~8월	몽돌 해변 해수욕	몽돌 해변
11~2월	다행이 연날리기	해변에 인접한 농로
12~2월	짚공예 만들기	마을회관
	쥐불놀이	마을회관 아래쪽 다행이 논

2007년 수립된 가천 다행이논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의한 다행이 논을 소재로 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쪽의 사진 중 상위 4개 은 2007년의 다행이 축제이고, 하위의 것은 2008년 다행이 축제장면이다.<sup>19)</sup>

19) 남해 다행이 마을을 직접 찾은 2008.6.30은 이미 모내기 등이 끝난 상태였으며, 일부 참자가가 마을의 다행이 논에서 체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림 3.2> 다행이 축제(2007)와 모내기



주 : 2008.6 다행이 축제

자료 : 다행이마을 홈페이지([www.darangyi.go2vil.org](http://www.darangyi.go2vil.org))

<그림 3.3> 다행이 축제와 주요활동

### (3) 평가

다랭이 마을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농업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업으로 사업추진 이후 2002년 농림부 농촌마을 가꾸기 장려상,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200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2005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5년 1월 다랭이 논을 문화재 관리법에 의한 국가 무형문화재인 “명승” 제15호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2004년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농촌진흥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는데 기여하였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다랭이 마을이 성공한 테마마을의 모델로 부상하여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농가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소득이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9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 2.8배보다 매우 높고, 이것은 2005년 당시 66개 농촌전통테마마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 자산가치 측면에서 토지가격은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CI(기업이미지) 및 BI(브랜드이미지) 개발과 다랭이 상표등록도 하여 향후 마을 생산물이나 상품의 제조 및 마케팅을 할 경우에도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었다.<sup>20)</sup> 하지만 농사체험은 바닷가에 인접한 논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30일에 직접 방문하여 다랭이 논의 농사를 보니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논의 비율이 1/3 수준이며, 도로와 가

---

20) 신정숙(2006), 농촌전통테마마을 경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7-38

까운 논은 대부분 이앙기를 사용하여 모내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농사체험에 대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4) 시사점

다랭이 마을은 잘 보존된 지역자원을 소재로 하여 시범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마을의 지역자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뛰어넘어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정도로 문화적 가치가 높아졌다. 이와 같이 잘 보존된 지역자원 즉, 향토자원을 소재로 한 농촌관련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촌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형태의 다랭이 논을 중심으로 전통적 농경사회를 재현함으로써 현대화되면서 소멸된 전통에 대한 가치를 보다 높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랭이 마을은 현대화에 뒤처진 빈촌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사라져 가는 농촌관련 전통요소를 잘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으로 다른 농촌관광 관련사업에서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 2)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 마을

#### (1) 일반현황

부래미마을은 행정구역상 이천시 율면 석산2리에 속하고, 시 남단에 위

치한 전통적인 농촌마을로서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아 옛 농촌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의 인구는 28농가 70명이고, 주 소득원은 이천쌀이고, 그 이외에 배, 복숭아, 고추, 인삼, 강낭콩 등 고소득 작물 재배를 많이 한다. 특히 부래미마을의 벼, 배, 복숭아는 저농약으로 재배하여 농협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일부는 ‘부래미’ 브랜드로 직거래 방식을 통해 거래된다.

부래미 마을은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2004년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경기도 슬로푸드마을, 팜스테이마을, 그리고 2005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등의 마을 자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민의 정기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성공적인 농촌관광마을로 알려지게 되었다.<sup>21)</sup>



<그림 3.4> 부래미마을

## (2) 사업추진현황 및 체험프로그램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2006.11.7~12)에서 11월 8일에서 10일 까지 3일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국사례 발표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

21) 송미령 외(2006.12), 농촌 지역혁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3-194

로 선정되어 발표되기도 하였다.<sup>22)</sup> 발표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농촌마을 체험관 건립, 마을다운 간판 제작, 저수지 생태계보존, 마을로고 및 브랜드 개발을 하였고, 주민학습활동,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실시, 체험프로그램 연구회 운영,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주민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홈커밍데이(출향인사 부래미사랑모임 초청), 농촌풍경그리기 미술대회, 국화전시회, 사진콘테스트 등의 지역 문화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먹거리 체험, 자연생태학습체험과 같은 도농교류 농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다.

<표 3.2> 부래미마을 주요 추진사업

구분	세부내용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마을가꾸기	농촌마을체험관 건립, 마을다운 간판제작, 저수지생태계 보존, 마을로고 및 브랜드개발
주민혁신역량강화	주민학습활동, 외부전문가 초청교육 실시, 체험프로그램 연구회 운영,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역문화가꾸기	홈커밍데이, 농촌풍경그리기대회 미술대회, 국화전시회, 사진콘테스트 등
도농교류 농촌체험마을 운영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먹거리체험, 자연생태학습 체험

자료 : 행정자치부(2006.11.8), '살기좋은 지역, 우린 이렇게 만들어요!' 보도자료

22) 행정자치부(2006.11.8), 보도자료, '살기 좋은 지역, 우린 이렇게 만들어가요!'



<봄 : 모종 옮겨심기>



<여름 : 우렁이 잡기>



<가을 : 고구마캐기>



<겨울 : 널뛰기>



<상시 : 도자기 굽기>



<상시 : 인절미 만들기>

자료 : [www.buraemi.com](http://www.buraemi.com)

<표 3.3> 부래미마을 체험프로그램

시기	체험프로그램
봄	봄나물캐기, 농산물 파종, 모종 옮겨심기, 모내기
여름	미꾸라지 잡기, 감자캐서 구워먹기, 옥수수 수확 및 구워먹기, 우렁이 잡기 강낭콩 수학, 고추따기, 포도수학, 복숭아 수학
가을	고구마 수학, 사과수학, 배수학, 벼수학, 도토리묵 만들기, 산밤줍기, 곤충채집
겨울	얼음썰매타기, 땅볼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팽이치기
상시	인절미 만들기, 우리콩 두부만들기, 풍물놀이, 생태체험, 도자기 만들기, 황도염색, 동물먹이주기, 장미수학

자료 : 부래미마을 홈페이지([www.buraemi.com](http://www.buraemi.com))

### (3) 평가

부래미 마을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촌체험마을에 비해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체험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통하여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국사례 발표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 도 하였다.

부래미 마을에서는 마을단위의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변 마을을 포함한 새로운 도전을 하였고, 이것은 석산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어 기존 추진 중인 마을내의 주민 간 갈등 해소 차원을 넘어 마을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농촌관광에서의 새로운 추진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시사점

부래미 마을에서의 시사점은 부래미(富來美)라는 마을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고, 특히 청년 부래미 브랜드의 상표등록을 하여 독자적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3.3 마을 홈페이지([www.buraemi.com](http://www.buraemi.com))를 만들어 마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부래미 홈커밍데이(富來美,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하여 외부손님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등의 농촌관광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매우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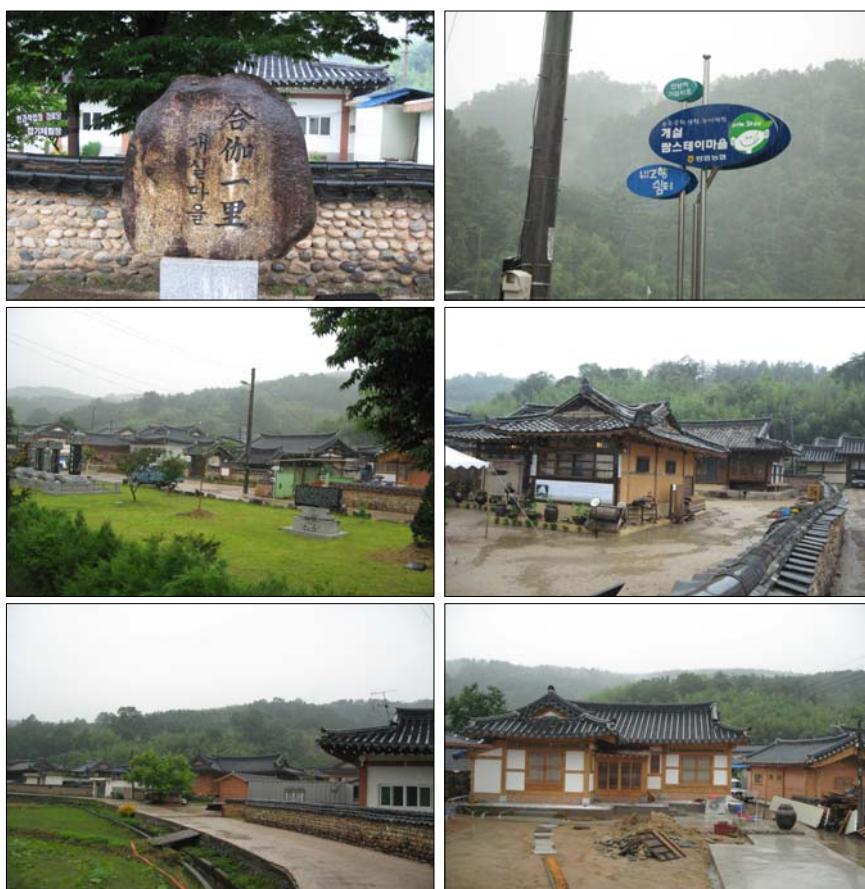
부래미마을의 수익은 체험관광, 농산물직판 및 전자상거래 운영에서 창출된다. 전체 수익에서 체험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고, 농산물 직판 및 전자상거래가 20%, 기타수입이 10%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체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체험관광이 마을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부래미마을의 독자사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한 외부적인 확장을 꾀하게 되며,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인 산성1리, 산양1리, 산양2리, 북두2리, 오성2리를 포함한 석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치규약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접근에서 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3)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

#### (1) 일반현황

고령 개실마을은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였던 점필재 김종직(1431~1492) 선생의 후손인 일선 김씨 집성촌으로 350여년 간 전통을 이어오면서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개실마을의 행정구역은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이며, 62가구 158명이 살고 있는 전통마을이다.



<그림 3.5> 개실마을 전경

개실마을은 전통마을로서 민속자료 제62호 점필재 종택, 문화재자료

제111호 도연재, 유형문화재 제209호 점필재의 문적유품 등의 문화재가 있고, 한옥정비를 통하여 마을이 대부분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통마을로서 마을정비가 한창이다. 대구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좋은 입지이다. 마을의 주 소득원은 딸기를 비롯한 시설원예로서 채소, 버섯, 고추, 오이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이를 관광객 및 방문객들이 직접 수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사업추진현황 및 체험프로그램

고령군의 그린투어리즘은 학계전문가, 산업전문가, 지역혁신협의회, 고령군, 개실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마을자치회)를 통하여 추진되었다.<sup>23)</sup> 학계전문가는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를 연계시키는데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전문가는 에버랜드, 명소IMC, (주)제일기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 개실마을 농촌체험관광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CI 및 캐릭터 개발, 전통음식 개발,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하였다. 지역혁신협의회와 군청은 그린투어리즘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행정적 지원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학계 및 산업전문가 등 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군의 신활력사업에 따라 개실마을의 그린투어리즘(농촌체험)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개실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체험마을로서의 농촌체험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역사에 관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예절 등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23) 고령군(2007),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지자체분야(신활력사업) 성공사례, “개실마을의 6차 산업 농촌체험관광” 자료

<표 3.4> 개실마을 체험프로그램

구 분	체험프로그램
전통놀이	대나무 이용 만들기(대나무물총, 소리통 등), 윷가락 만들기, 윷놀이, 연만들기
전통음식	국수만들기, 엿만들기, 한과만들기
농촌체험	야생화 화분만들기 체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도자기만들기, 압화, 짚공예
전통예절	예절교육, 천연비누·천연화장품

자료 : 개실마을 홈페이지([www.gaesil.net](http://www.gaesil.net))



<대나무이용 만들기 강좌>



<국수만들기>

<압화만들기>

자료 : 개실마을 홈페이지([www.gaesil.net](http://www.gaesil.net))

개실마을에서는 전통체험활동 이외에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3.5> 개실마을 친환경농업관련 체험활동

구분	친환경농업 실천	특 징	체험프로그램
관찰	•긴꼬리투구새우, 하천내 우렁이, 메뚜기 집단서식	•투구새우는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보호종 •우렁이, 메뚜기 등도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	•관찰소에서 학습, 영상촬영 •우렁이, 메뚜기 잡기체험과 병행
체험	•딸기따기, 딸기쨈, 딸기수정과, 딸기엿, 딸기고추장 만들기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춤	•딸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가공품 만들기 가족체험

자료 : 고령군 내부자료

### (3) 평가

개실마을은 제6회 전국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2008)에서 대상(大賞) 마을로 선정되었다. 대상선정 이유는 흙과 돌로 전통 담벼락을 복원하고 마을 한옥과 종택 등을 보수해 사대부가의 옛 정취를 느끼도록 했으며, 화장실 등 생활시설을 개선해 도시민과 청소년, 외국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종택에서 예절 익히기와 전통혼례 재현 등의 체험관광을 농촌관광과 병행함으로써 타 농촌체험마을과는 차별성과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2008년 6월 28일 장마비에 불구하고, 서울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통체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체험참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민박집>



<체험침가자>



<그림 3.6> 체험활동 참가 모습

개실마을에 대한 평가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의 전통적 건축물과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하고, 여기에 풍물놀이에 대한 정기적인 학습을 통하여 마을이 가지는 유형의 역사문화자원과 무형의 문화자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령군의 신활력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별 마을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군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농촌체험마을의 육성이 가능하다. 개실마을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농촌체험활동으로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개실마을농촌관광 강좌를 개설하여 인접 마을까지 포함하여 농촌관광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의식교육과 전문학습과정을 열고, 현장견학과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의를 하여 지속적인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 시사점

개실마을에서의 체험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개실마을은 전통마을로서 잘 보존된 전통건축물을 활용하고, 여기에 무형의 전통문화를 도입함으로써 내외국인 모두 찾아갈 수 있는 농촌관광지로 부상하였다.

둘째,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농업관련 관광요소를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지역주민의 주 소득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개실마을은 전통마을로서 지역주민의 보수성이 매우 강한데, 이를 극복하고 체험마을로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한 점이 마을 내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사업추진 측면에서 시사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3 어촌체험마을 사례

#### 1) 전북 고창군 하전 갯벌체험마을<sup>24)</sup>

##### (1) 일반현황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은 총 225세대 63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총 10km 이상의 해안선과 접해 있으며, 마을 앞에는 170ha의 서해안 갯벌이 펼쳐져 있다. 인구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젊은 층(20~40대)은 40%에 불과하다. 이 지역은 바지락을 연간 4,000여 톤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풍천장어·김·대하 등을 생산하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24) 김영주(2007),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91~103과 하전마을 홈페이지(<http://hajeon.com>)를 요약 정리하였다.



자료 : 하전마을 홈페이지(<http://hajeon.com>)

<그림 3.7> 하전마을 현황

하전 갯벌체험마을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종합안내센터·세족장·주차장·편의시설을 건설하고 2004년 5월부터 갯벌체험을 시작하였다.

고창군과 하전마을 어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지로 지정받았다. 또한 2003년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국비 20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등 총 350백만원을 지원받아 마을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PC 94대를 보급하였다.

2007년 제1회 어촌체험마을 혁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체험프로그램(갯벌)이 명확하여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으며, 안내소와 체험장까지의 접근성 애로점을 ‘갯벌택시’, ‘갯벌버스’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극복하였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고객관리 활동이 우수하였기 때문이다.

<표 3.6> 하전 갯벌체험마을 개발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위 치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마을
사업기간	2002~2003(2년)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25, 자부담 25)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안내소: 1동 2층 504m<sup>2</sup>(안내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강의실, 식당)</li> <li>- 주차장: 1,800m<sup>2</sup>, 진입로 포장: L220m, B=2.5m</li> <li>- 종합안내판 등 1종, 세족장 1개소, 간이화장실 1식</li> </ul>
기타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2004 하전정보화마을 350백만원</li> <li>- 2005 체험마을 진입로 정비 100백만원</li> <li>- 2006 마을입구개선 및 컨설팅, 경운기, 체험용품, 팜플렛제작 35백만원</li> </ul>

자료 : 고창군청(2006), 내부자료

## (2) 사업추진 현황

하전마을의 어촌체험마을은 갯벌체험을 주요 테마로 하여 보조테마는 바지락 캐기, 망둥이 잡기, 갯벌스포츠, 감자 캐기 등이다. 마을의 고유자원현황은 <표 3.7>과 같다.

<표 3.7> 하전마을 고유자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볼거리	해돋이, 축제식 양식장, 간조 시 5개 바위(범바우, 사슴바우, 그물바우, 큰고실, 검당고실), 심원 고인돌(2기), 진체선 명창 생가 터, 연화봉 초당터, 전통어구자료, 복분자밭
먹을거리	바지락, 바지락요리(바지락 칼국수, 전골, 무침, 죽), 전어, 대하구이, 숭어, 망둥이, 새우, 김, 굴, 복분자
즐길거리	바지락 캐기, 갯벌스포츠(축구, 씨름, 줄다리기, 축구공 릴레이, 유격훈련), 갯벌택시와 갯벌버스 타고 갯벌 여행, 머드체험, 망둥이 잡기, 감자 캐기

하전갯벌체험마을의 어촌체험관광 관련 주요시설은 체험시설로는 갯벌체험안내센터, 갯벌체험장, 갯벌축구장 등이 있으며, 관광객 편의시설로는 매점, 정보센터, 샤워장, 세족장,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마을 내 어촌체험관광 관련 시설로는 민박가구 4가구 9실이 운영 중이며 약 6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식사시설은 마을 내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 5개소가 있다.

하전 갯벌체험마을의 갯벌체험을 위한 조직 구성은 운영·총괄하는 어촌계장 1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1인, 운영요원 8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지락 캐기, 정치망어업체험 등이며, 프로그램은 계절별 특산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3.8> 유형별 체험 프로그램

유형별	체험프로그램	요금(1인당)
일반형	1. 갯벌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갯벌이야기 2. 갯벌체험에 필요한 준비물 지급(장화, 갈퀴) 3. 바지락캐기 체험(어른: 1.5kg, 어린이: 1kg) 4. 갯벌택시타기 5. 안내센터 샤워장 이용 6. 정치망어장 체험	소인 : 7,000원 대인 : 12,000원
가족형 (4인 기준)	1. 갯벌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갯벌이야기 2. 갯벌체험에 필요한 준비물 지급(장화, 갈퀴) 3. 골뱅이와 소라잡기 또는 민꽃게잡이 4. 갯벌택시타기 5. 안내센터 샤워장 이용 6. 갯벌에서 골뱅이 삶아먹기	소인 : 12,000원 대인 : 18,000원
단체형 (40인 이상)	1. 갯벌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갯벌이야기 2. 갯벌체험에 필요한 준비물 지급(장화, 갈퀴) 3. 바지락캐기 체험(어른: 1.5kg, 어린이: 1kg) 4. 갯벌택시타기 5. 안내센터 샤워장 이용 6. 정치망어장 체험 7. 갯벌 스포츠(갯벌축구, 갯벌릴레이경기 등)	유치원 : 5,000원 초중고 : 6,000원 일 반 : 10,000원
숙박형 (1박2일 기준)	1. 갯벌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갯벌이야기 2. 갯벌체험에 필요한 준비물 지급(장화, 갈퀴) 3. 바지락캐기 체험(어른: 1.5kg, 어린이: 1kg) 4. 갯벌택시타기 5. 안내센터 샤워장 이용 6. 정치망어장 체험 7. 식사 3식(장어구이백반, 숭어구이백반, 바지락 국백반) 8. 계절별 굴구이나 조개구이 또는 군고구마 먹기 9. 숙박 10. 선운산 오르기	소인 : 52,000원 대인 : 58,000원
먹거리 공통사항	10월~5월: 숭어회 맛보기 6월~8월: 감자 삶아먹기 8월~12월: 고구마 삶아먹기	

자료 : 하전마을 홈페이지([hajeon.com](http://hajeon.com))



자료 : <http://hajeon.invil.org>(하전갯벌체험)

<그림 3.8> 갯벌체험 활동사진

### (3) 개발효과

갯벌체험마을의 운영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사회적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갯벌체험을 통하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체험 소득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시 지역 특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하여 자연적으로 지역특산

물 홍보 및 판매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체험마을은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 주민들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체험마을 운영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한 마을 주민간 협력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기초가 된다.

#### (4) 시사점

성공적인 체험마을로서 평가받는 곳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실현한 곳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전갯벌체험마을은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로서 지역특화자원인 갯벌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갯벌이라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속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관광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체험과 관광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전갯벌체험마을에서의 시사점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특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자연환경기반의 관광상품화를 들 수 있다.

## 2) 경북 영덕군 대진1리 어촌체험마을

### (1) 일반현황

대진1리는 동해안 7번 국도와 해안도로를 끼고 있으며, 마을 뒤로 상대산과 북쪽으로 전국 최고 수질의 대진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안의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대진1리는 85가구 192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로서 어촌계원수는 82명이고, 이중 어촌체험마을운영 참가자 수는 54인이다. 최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7번 국도 확장 등으로 대진1리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내륙지방에서의 접근시간이 40~50% 개선되었다.

마을의 주요관광자원으로서는 대진해수욕장, 대진항, 송천천, 상대산, 김도현 도해당이 있고, 주변관광자원으로서는 고래불해수욕장, 창포해맞이공원, 축산항, 칠보산자연휴양림, 괴시전통마을 등이 있다. 또한 마을 특산물로서는 영덕대게, 전복, 우렁쉥이(멍게), 미역, 조개 등이 있고 이들의 연간 판매액은 10억원에 달한다.



<그림 3.9> 대진1리 마을현황

## (2) 시설현황 및 체험프로그램

어촌체험관광 시설로서는 민박 50가구(총객실수 120실, 수용인원 370인)와 식사가능한 식당이 6개소가 있다. 그리고 체험시설로서는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스키스쿠버 교육장, 풀장(실내외), 바다낚시, 우렁쉥이체험, 송천강 제첩잡지 체험, 해안산책로, 후리그물 체험, 선상낚시가 있다. 또한, 300대 정도 주차가능한 주차장과 대형주차장(1,000m<sup>2</sup> 정도)이 있고, 영덕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야외수련장이 있어 야영이 편리하다.

대진1리의 체험프로그램으로서 타마을과 차별화되는 대표 프로그램은 해양레포츠 체험(스킨스쿠버 등), 송천강 제첩잡기체험, 우렁쉥이체험이다. 대진1리의 체험프로그램은 <표3.9>와 같다

<표 3.9> 체험프로그램

체험유형	프로그램 소개	비고
멍게 양식체험	○선박을 이용하여 멍게양식장으로 이동, 양식장 견학 및 직접 채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식 및 현장구매도 가능	
바다낚시 (선상낚시)	○바닷물이 맑아 언제든지 싱싱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간단한 횟거리와 매운탕도 서비스로 제공, 최고의 포인트 안내 ○주로 잡히는 아종은 도다리, 놀래미, 뿔락 등이며, 갯바위 낚시객들을 위해 낚시대 대여	-15만원: 체험인원(5~7명) -22만원 : 체험인원(8~12명)
후릿그물 체험	○후릿그물은 전통어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기잡이 방법, 어선을 이용해 그물을 원형으로 바다에 펼치고 양쪽에서 그물을 당겨 고기잡이를 하는 체험으로 대진해수욕장 앞에서 실시, 현장에서 잡은 고기는 체험객들에게 모두 제공	
돌미역 채취 및 건조 체험	○어민들과 함께 어선을 타고 갯바위에 붙어 자라고 있는 돌 미역을 채취하는 체험, 직접 채취한 미역은 건조 체험을 통해 가져갈 수 있음 ○가져가지 못한 미역은 마을에서 택배로 배송 가능	
스킨스쿠버	○에메랄드빛 바닷물 속에서 형형색색의 암초 및 물고기들을 벗 삼아 해양레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스키스쿠버를 즐길 수 있음	

어촌체험관광 관련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로서는 해양수산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체험행사, 수중정화활동(8회/연), 자원조성사업(전복, 우럭, 넙치, 대구, 청어 등 5회 실시), 해적생물 구제사업(불가사리 수거 10회 실시) 등이 있다.

그리고 마을리더 및 주민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가 육성과 도시방문객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2007년 기아자동차 하계수련회를 유치하여 10,000여명이 참가하였고, (주)삼부토건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또한 마을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 가이드북 등에 홍보하고 있다.



<스킨스쿠버 입수전>



<후릿그물 당기기>



<우렁쉥이 선별 체험>



<송천강 제철줍기 체험>

자료 : 영덕군청 내부자료

### (3) 효과

대진1리 어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으며, 영덕대개와 같은 인접지역과의 공유가 가능한 관광상품을 통하여 대진1리를 포함한 인접지역에까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체험마을은 공동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킨스쿠버체험의 경우 어촌계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입수가 가능하나 일부 어업인의 반대로 인하여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수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 및 불가사리 구제 작업, 마을어장 정화사업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였다. 그러한 갈등해소 이후 마을주민들이 스쿠버 이용자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하여 전국 최고의 스쿠버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4) 시사점

동해안지역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지역에 비해 계절적 요인의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sup>25)</sup>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이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에서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25)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2008.6.15(일)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스킨스쿠버를 제외한 체험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관광객도 일부 낚시꾼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동해안지역이 가지는 계절적 한계가 어촌체험마을의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개발이 필요하며, 인접 마을인 경진2리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접마을간 협력체계 마련과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남 하동군 대도 어촌체험마을

#### (1) 일반현황

대도마을은 하동군 금남면에 속해 있으며, 하동군의 유인도서 1개, 무인도서 21개 등 총 22개의 섬 중 하나이다. 대도마을은 해안선이 84.41km이며, 하동군의 유일한 유인도서로서 57세대 165명이 거주하고 있고, 장수 이씨 집성촌이다. 대도는 남해대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대도지역은 148ha의 해안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 바다는 해상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도마을은 섬 지역으로 접근수단은 육상교통수단과 도선을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다소 열악하며, 도선이용이 한정적이므로 이용체계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선이용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육지인 노량마을과는 지척에 있다. 마을의 주소득원은 바지락, 굴, 피조개, 어류양식, 어선어업 등이지만, 최근 광양제철소(포스코) 및 하동화력발전소가 인접하여 입지하면서 수산관련 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 (2) 추진사업현황

대도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국비 2.5억원, 지방비 2.25억원, 자부담 0.25억원)을 들여 2006년 4월에 완성되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생태체험장과 편의시설로서, 생태체험장에는 갯벌체험장, 지암보도, 낚시데크, 해수풀장 등이 있고, 편의시설은 관광안내소, 소공원, 산책로, 세족장, 종합안내판 등이 있다.



<그림 3.10> 마을 안내판과 관광안내소



<그림 3.11> 대도어촌체험마을 계획도

<표 3.10> 체험프로그램

체험유형	프로그램
갯벌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시간에 조개잡기 등 갯벌체험 대회</li> <li>체험을 통해 생물의 종류와 채취방법 발표</li> </ul>
가두리양식장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류가두리 양식장에서 직접 사료 던져주기</li> <li>가두리 양식장내 어종 알아맞추기 등</li> </ul>
해상관광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어선 및 도선을 이용한 해상관광체험 : 남해대교와 한려해상국립공원,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인 광양포스코, 여수산업단지, 화동화력 등의 절경을 해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상관광체험</li> </ul>
해상낚시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호인, 주부, 어린이 낚시대회 개최</li> <li>가족단위 낚시체험 유도</li> </ul>



주 : 바다낚시체험(1행좌·3행우), 갯벌체험(2행), 고기잡기 체험(3행좌), 뱃놀이(1행우)  
자료 : 하동군청 내부자료

<그림 3.12> 대도마을 체험활동

대도마을은 인접지역에 대규모 공업시설 및 화력발전소가 입지하면서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도서 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해양관광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봄도다리와 유채꽃’ 축제를 기획하여 섬의 축제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sup>26)</sup>

도서특화 시범사업은 도서 종합리조트의 개발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지역 및 주민소득 증대 유도를 목표로 다양한 해양관광레저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은 물론 어업보상비를 마을 발전비용으로 투자해 민간중심의 발전(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업보상비의 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이를 주요 개발가능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자료 : 하동군(2006), 대도마을 도서특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그림 3.13>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 조감도

26) 2008.4.12~20 제1회 봄도다리와 유채꽃 축제가 개최되었고, 축제는 지역특산물과 자연경관을 절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5 직접 대도를 찾았을 때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았고, 주민협의회에서 직접 행사를 주최하였다.

### (3) 평가

대도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제2회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2008)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체험프로그램별 이용객수를 살펴보면, 갯벌체험 22천명, 가두리양식장체험 3천명, 해상관광체험 15천명, 해상낚시체험 30천명으로 연간 7만여명의 체험이용객이 대도어촌체험마을을 찾고 있다. 이용객의 증가는 소득증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28백만원에서 2006년 30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대도마을은 어촌체험마을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섬 지역 개발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어업피해보상금을 가구별로 분할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기금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현황을 감안하고, 대부분의 어촌체험마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관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간 의견을 원활히 조정하고 있으며,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전문기관교육과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것은 어업피해보상금의 마을기금 조성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데 주요 사례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4) 시사점

대도마을은 갯벌체험 및 바다낚시 등의 어촌체험마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도서특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섬이라는 특성을 살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도마을은 단순히 체험을 통한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도서시범 특화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하여 대도마을을 새로운 휴양지로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 직접적 투자를 통하여 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업의 성공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마을에서의 시사점은 첫째, 섬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둘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투자와 동참)를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4 시사점 도출

앞에서 살펴 본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의 사례를 마을별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해 다랭이마을은 열악한 지역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내용적 의미(전통)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농경자원을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적절히 활용한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이라는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천 부래미마을은 마을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적극적으

---

27) 대도마을 주민의 총투자액은 150억원으로 주요 개발가능한 토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지를 구상하고 있다.

로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농촌체험의 프로그램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주 소득원으로 만들고 있다. 출향인사 고향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을 찾게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인접지역을 포함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고령 개실마을은 전통마을이 가지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전통건축물과 역사문화체험 등 유·무형의 향토역사문화 자원을 농촌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농촌테마마을 사례지역 시사점

농촌테마마을	특징 및 시사점	비고
남해 다랭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지역환경 새롭게 부각</li> <li>◦ 전통적인 농경자원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li> <li>◦ 추진과정상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이 효과를 발휘</li> </ul>	
이천 부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에 성공</li> <li>◦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확산이 소득원으로 정착</li> <li>◦ 출향인사 고향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li> <li>◦ 마을단위가 아니라 인접지역을 포함한 사업으로 확대</li> </ul>	
고령 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전통건축물, 유무형 향토역사문화자원을 활용</li> <li>◦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민의 소득원으로 활용</li> <li>◦ 전통마을로서 보수성이 강한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사업추진</li> </ul>	

넷째, 고창 하전마을은 갯벌체험 활동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시켜 체험관광객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영덕 대진1리는 어촌체험활동의 프로그램구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매결연(1사1촌 운동), 출향인사 방문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여섯째, 하동 대도마을은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새로운 사업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과정이 매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2> 어촌테마마을 사례지역 시사점

농촌테마마을	특징 및 시사점	비고
고창 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li> <li>○ 지역특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개발로 차별화(갯벌의 바지락을 이용한 사례)</li> <li>○ 관광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체험과 관광의 만족도 제고</li> </ul>	
영덕 대진1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li> <li>○ 인접마을과의 협력체계 마련과 공동프로그램 운영</li> <li>○ 해양레포츠체험(스킨스쿠바 등), 명계·미역 등 해산물 채취 및 제철잡기 등이 운영</li> <li>○ 자매결연((주)삼부토건) 및 기업의 하계수련지로 이용</li> <li>○ 마을자체 홍보물 제작하여 관광 가이드 북에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킨스쿠바의 경우 초기에 갈등이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 운영중임</li> </ul>
하동 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시범 특화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섬이라는 여건을 새로운 사업구상을 통해 개발</li> <li>○ 주민들의 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li> <li>○ 민주적인 개발 추진 과정</li> </ul>	

이상의 사례 마을별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것이고, 둘째, 도시민의 교류 및 체험객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체험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제주지역 일반현황 및 실태분석

### 4.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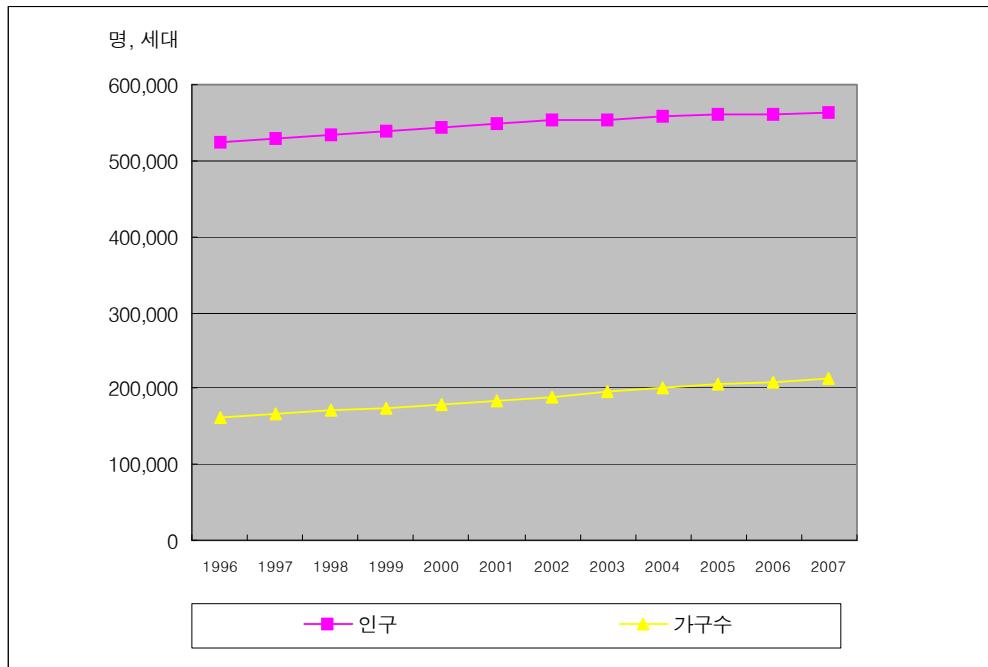
#### 1) 인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2007년말 기준 약 563천여명으로, 과거 10년간 약간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연증가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가구수는 1996년 161천 가구에서 2007년 211천 가구로 연평균 2.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가구당 인구는 1996년에 3.2인/가구에서 2007년에 2.7인/가구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4.1> 인구 및 가구수 증감 추이

연 도	인 구	가 구 수	가구당 인구 (인/가구)	인구밀도 (인/km <sup>2</sup> )	면적(km <sup>2</sup> )
1996	523,736	161,211	3.2	283.78	1,845.60
1997	528,360	165,653	3.2	286.28	1,845.59
1998	534,715	170,338	3.1	289.68	1,845.88
1999	539,493	173,612	3.1	292.26	1,845.92
2000	543,323	177,600	3.1	294.28	1,846.28
2001	547,964	183,248	3.0	296.66	1,847.11
2002	552,310	188,760	2.9	299.00	1,847.19
2003	553,864	194,855	2.8	299.75	1,847.77
2004	557,235	199,989	2.8	301.50	1,848.21
2005	559,747	204,635	2.7	302.85	1,848.27
2006	561,695	208,424	2.7	303.88	1,848.40
2007	563,388	211,850	2.7	304.77	1,848.40
증가율(%)	0.67	2.51	-1.53	-	-

자료 : 통계연보, 각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그림 4.1> 인구 및 가구수 추이

## 2) 자동차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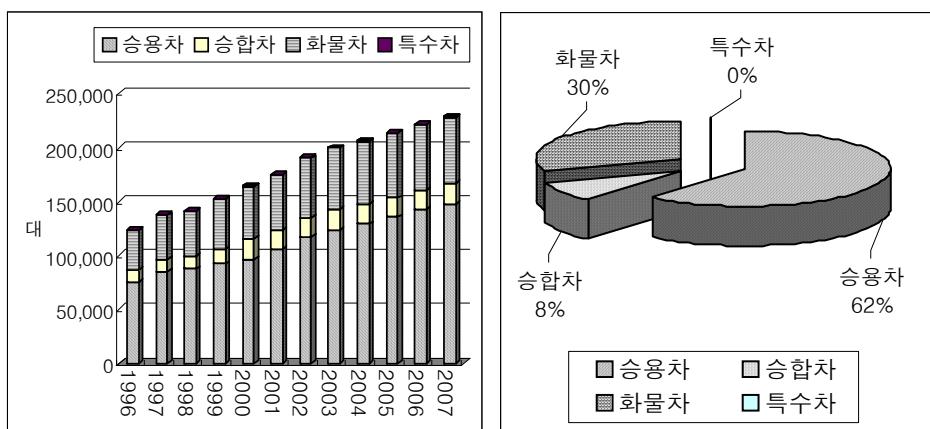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07년 12월 현재 총 약 228천대에 가구당 보유대수는 1.08대/가구이고, 이중 승용차가 약 148천대로서 가구당 보유대수가 0.70대/가구이며 화물차는 62천대, 승합차는 18천대이다. 과거 '96~'07년간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총 차량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74%, 이중 승용차가 연평균 6.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그 외 같은 기간 동안 승합차는 5.38%, 특수차는 10.35%, 화물차는 4.6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자동차 보유대수 증감 추이

(단위 : 대)

연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대수	가구당 보유대수	대수	가구당 보유대수	대수	가구당 보유대수		
1996	123,829	0.77	75,589	0.47	10,354	0.06	37,731	155
1997	137,351	0.83	85,228	0.51	11,404	0.07	40,545	174
1998	140,963	0.83	87,377	0.51	11,776	0.07	41,621	189
1999	152,168	0.88	91,906	0.53	14,351	0.08	45,691	220
2000	164,360	0.93	95,565	0.54	19,344	0.11	49,208	243
2001	175,367	0.96	105,718	0.58	17,165	0.09	52,218	271
2002	190,659	1.01	116,957	0.62	18,171	0.10	55,224	307
2003	199,976	1.03	123,948	0.64	18,387	0.09	57,305	336
2004	206,328	1.03	129,203	0.65	18,196	0.09	58,558	371
2005	213,310	1.04	135,644	0.66	17,314	0.08	59,947	405
2006	222,025	1.07	142,651	0.68	17,917	0.09	61,026	431
2007	228,858	1.08	147,891	0.70	18,420	0.09	62,089	458
증가율(%)	5.74	3.12	6.29	3.69	5.38	3.75	4.63	10.35

자료 :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그림 4.2>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세 및 차종별 분포비율

### 3) 학생 및 고용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수는 '96년 126천명에서 '07년 약 122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0.27\%$ 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연평균  $1.40\%$ 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연평균  $-1.65\%$ 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3> 학생수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소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기타
1996	126,198	6,211	41,442	28,043	26,799	23,335	623	740
1997	127,486	6,108	41,291	26,060	27,676	25,140	838	754
1998	128,330	6,029	42,435	23,547	27,287	28,311	858	838
1999	130,448	5,848	44,510	21,870	25,983	30,732	1,166	848
2000	130,186	5,903	46,778	20,537	23,865	30,758	1,496	849
2001	131,165	6,031	48,850	19,963	21,505	32,282	1,645	889
2002	130,079	5,858	50,770	20,178	20,229	30,361	1,809	874
2003	129,706	5,970	52,144	20,719	16,415	28,829	1,845	784
2004	129,812	5,540	52,359	22,207	18,880	28,051	1,956	819
2005	130,236	5,706	51,671	23,856	19,035	26,961	2,171	836
2006	128,974	5,672	50,791	25,252	19,515	25,153	1,735	856
2007	122,558	5,016	48,291	25,708	22,312	19,129	1,661	441
증가율(%)	-0.27	-1.92	1.40	-0.79	-1.65	-1.79	9.32	-4.60

자료 : 통계연보, 각 연도,

고용자수의 경우 '96년 253천명에서 '07년 289천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IMF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00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은 감소추세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8, '99년에는 IMF여파로 감소추세를 보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 고용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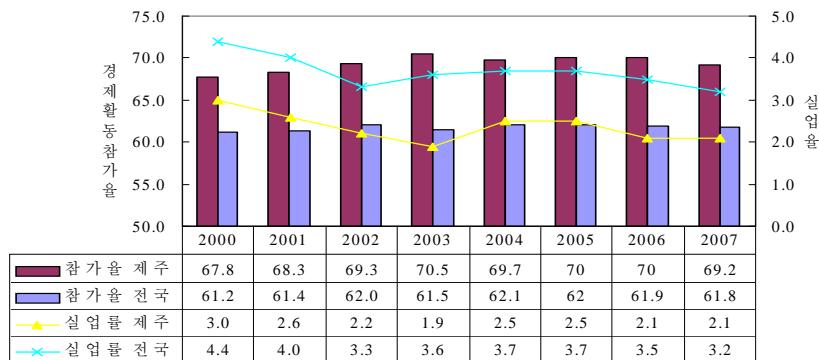
(단위 : 천명)

연도	소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96	253	76	11	165
1997	265	77	12	175
1998	249	76	9	164
1999	249	71	8	168
2000	261	70	10	180
2001	264	66	11.8	186
2002	271	62	13	195
2003	281	72	12	196
2004	278	68	12	198
2005	284	67	12	205
2006	289	64	10	215
2007	289	63	8	218
증가율(%)	1.22	-1.69	-2.85	2.56

자료 :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4) 경제활동

제주의 경제활동 인구는 2007년 기준 제주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2%로 전국의 61.8%보다 높으며 실업률은 2.1%로 전국의 3.2%보다 낮다. 최근 8년간(2000~2007년) 경제활동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림 4.3> 제주도 경제활동인구 추이(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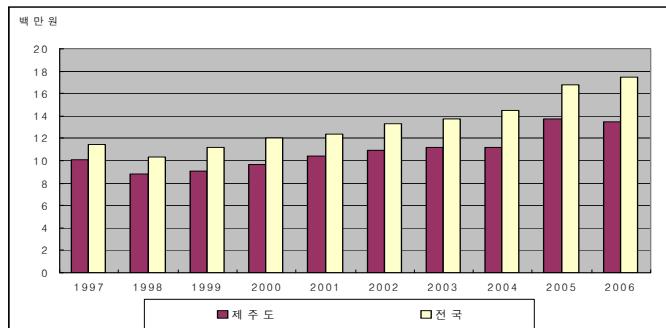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총생산은 '06년 기준 당해년 가격기준으로는 7조 6천억원, '00년 고정가격 기준으로는 6조 6천억원을 기록하였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수준보다 낮고, 그 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과의 격차수준을 보면 '94년 1백4십만 원에서 '06년 4백만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표 4.5> 1인당 지역총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제주도	전국	격차	전국대비(%)
1994	8.5	9.9	1.4	86.1
1995	9.5	10.6	1.1	89.7
1996	9.9	11.1	1.3	88.7
1997	10.1	11.4	1.4	88.1
1998	8.8	10.3	1.5	85.8
1999	9.1	11.2	2.2	80.5
2000	9.7	12.0	2.3	80.8
2001	10.4	12.4	2.1	83.5
2002	10.9	13.3	2.5	81.5
2003	11.2	13.7	2.5	81.7
2004	11.2	14.5	3.3	77.5
2005	13.7	16.8	3.1	81.5
2006	13.5	17.5	4.0	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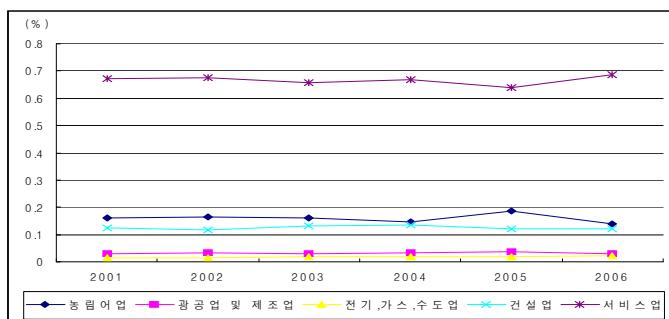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지역총생산액, 각 연도(2000년 기준가격)



<그림 4.4>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추이

##### 5) 산업별 총생산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10년간 산업별 지역총생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농림어업, 관광관련 산업, 건설업 등은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업 및 제조업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은 3.1%에 불과한 반면, 농림어업은 13.9%를 차지하고 있어 자립적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림 4.5> 산업별 총생산액의 추이(단위: 백만원, 2000년 기준가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주요행정총람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

업 중심의 3차 산업이 8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산업과 1차 산업이 각각 11.4%, 3.41%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현황

(단위 : 개, 인, %)

산업별	사업체 수			총사자수				
	2005 기준	2006 기준	구성비	2005 기준	2006 기준	구성비		
전 산업	43,305	43,609	100.0	0.7	171,844	176,648	100.0	2.8
A. 농업 및 임업	389	375	0.9	-3.6	4,366	4,637	2.6	6.2
B. 어업	121	122	0.3	0.8	911	1,379	0.8	51.4
C. 광업	15	13	0.0	-13.3	230	140	0.1	-39.1
D. 제조업	2,016	2,031	4.6	0.7	8,580	8,556	4.8	-0.3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28	27	0.1	-3.6	1,083	1,275	0.7	22.8
F. 건설업	1,154	1,188	2.7	2.9	9,070	10,148	5.7	11.9
G. 도매 및 소매업	11,556	11,599	26.6	0.4	30,788	31,054	17.6	0.9
H. 숙박 및 음식점업	10,245	20,210	23.4	-0.3	32,520	31,130	17.6	-4.3
I. 운수업	5,788	5,914	13.6	2.2	12,432	13,026	7.4	4.8
J. 통신업	119	125	0.3	5.0	1,489	1,485	0.8	-0.3
K. 금융 및 보험업	552	570	1.3	3.3	8,346	8,493	4.8	1.8
L. 부동산 및 임대업	935	955	2.2	2.1	2,828	3,034	1.7	7.3
M. 사업서비스업	792	895	2.1	13.0	6,739	8,128	4.6	20.6
N.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1	274	0.6	-28.1	9,477	9,534	5.4	0.6
O. 교육서비스업	1,689	1,763	4.0	4.4	14,561	15,027	8.5	3.2
P. 보건·사회복지사업	1,084	1,118	2.6	3.1	9,023	9,543	5.4	5.8
Q. 오락·운동·관련서비스업	1,766	1,676	3.8	-5.1	8,655	9,279	5.3	7.1
R. 기타, 개인서비스업	4,675	4,754	10.9	1.7	10,781	10,780	6.2	-0.1

자료 : 경제정책과, 2006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표 4.7> 산업별 종사자수

구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자 수(인)	6,016	20,119	150,513

## 6) 관광산업

2007년 기준 연간관광객은 543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2.28%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이중 내국인은 488만명(90.0%), 외국인은 54만명(10.0%)에 달한다. 관광객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지정

및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등과 같은 계기가 도내 관광의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관 광 객	계	4,110	4,197	4,515	4,913	4,932	5,020	5,312	5,429
	내국인	3,822	3,907	4,226	4,692	4,603	4,641	4,852	4,888
	외국인	288	290	289	221	329	379	460	541
	증가율(%)	12.0	2.1	7.6	8.8	0.4	1.8	5.8	2.2
관 광 수 입	계	14,975	14,957	15,265	15,661	16,787	17,201	18,468	22,144
	내국인	10,877	10,917	11,525	13,073	13,079	13,030	13,460	16,034
	외국인	4,098	4,040	3,740	2,588	3,708	4,171	5,008	6,110
	증가율(%)	45.4	△0.1	2.1	2.6	7.2	2.47	7.4	19.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행정총람(2007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숙박시설로는 2007년말 기준 총 770개소에 23,854실의 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업소는 93개소 10,914실(45.8%), 여관 449개소 8,262실(34.6%)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객실수의 69.8%, 서귀포시의 경우 3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제주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표 4.9> 숙박시설 현황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계	770	23,854	567	16,655	203	7,199	
관광 숙박업	소 계	93	10,914	61	6,591	32	4,323
	종합관광호텔	52	6,684	36	4,147	16	2,537
	전통호텔	1	26			1	26
	가족호텔	4	134	1	30	3	104
	휴양콘도미니엄	36	4,070	24	2,414	12	1,656
휴양펜션업	41	399	21	216	20	183	
일반호텔	77	3,178	72	2,988	5	190	
여관	449	8,262	324	5,926	125	2,336	
여인숙	110	1,101	89	934	21	16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행정총람(2007년 말 기준)

## 4.2 농어촌체험마을 현황

### 1) 체험마을 현황<sup>28)</sup>

녹색농촌체험마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지정된 건수는 2008년 현재 966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체험마을중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17개로 22.5%, 어촌체험마을 124개 12.8%,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등이 지정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47개로 전체의 15.2%로 가장 많고, 전북, 경기, 경북 등의 순이며, 제주의 경우는 32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0> 전국의 체험마을 유형별 현황

유형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계	비율
녹색농촌체험마을1)	37	23	21	27	12	40	34	15	8	217	22.5
농촌전통체험마을2)	10	4	6	5	9	6	8	4	3	55	5.7
산촌체험마을3)	17	12	13	18	15	22	14	12	1	124	12.8
어촌체험마을4)	3	4	5	4	5	3	2	—	2	28	2.9
정보화마을5)	46	59	24	45	40	36	37	19	14	320	33.1
팜스테이마을6)	34	30	32	26	27	27	26	16	4	222	23.0
계	147	132	101	125	108	134	121	66	32	966	100.0
비율(%)	15.2	13.7	10.5	12.9	11.2	13.9	12.5	6.8	3.3	100.0	

1) [www.greentour.or.kr](http://www.greentour.or.kr) 2) [www.greentour.or.kr](http://www.greentour.or.kr) 3) [www.san.go.kr](http://www.san.go.kr) 4) [www.seantour.co](http://www.seantour.co)

5) [www.invil.org](http://www.invil.org) 6) [www.farmstay.co.kr](http://www.farmstay.co.kr)

제주특별자치도내 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등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현황은 녹색농촌체험마을 9개소 등을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개소이며 저지리의 경우는 5건, 유수암리 3건이 중복지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정건수 및 지정시기로 볼 때 농어촌 테마마을사업은 현재 태동기로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28) 각 체험마을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및 관련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현황으로 실제와 다소 다를수 있음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역별 현황(‘08.4.25 현재)

마을별	계	살기 좋은 지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 험마을조성		농촌전통 테마마을	전원마을 ‘05-‘08	정보화 마을
		‘07	‘08	‘05	‘06	‘07	‘08	‘07	‘08			
계	39	1	-	2	4	-	4	8	1	4	1	14
한림읍	-											
애월읍	-											
장전리	1					○						
유수암리	3							○	○			○
구좌읍	-											
김녕리	1											○
조천읍	-											
와흘리	1											○
교래리	1					○						
한경면	-											
판포리	1			○								
금동리	1			○								
두모리	1			○								
신창리	1			○								
청수리	2					○	○					
산양리	1					○						
저지리	5	○				○	○			○	○	
낙천리	2					○				○		
추자면	1											○
우도면	-											
천진리	1											○
영평동	1											○
무릉2리	1					○						
구억리	1											○
남원읍	-											
한남리	1											○
성산읍	-											
온평리	1					○						
신풍리	1								○			
수산1리	1											○
안덕면	-											
동광리	1					○						
감산리	2		○									○
대평리	2		○							○		
표선면	-											
토산2리	2					○						○
월평동	1											○
상예1동	1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8개 마을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예래동이 수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당일체험과 숙박, 견학 및 체 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예래동의 경우 주변에 중문관광단지 및 숙박시설 등으로 인해서 방문객수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 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래리의 경우는 당일체험이 많고 토종닭을 재료로 한 음식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표 4.12>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2007년)

마을별	방문객수(명)				소득액(천원)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타	계	숙박	음식	농특산 물판매	체험프로 그램운영
		당일체험	숙박							
계	70,999	37,427	31,529	1,285	758	1,530,116	391,120	799,269	314,208	24,349
예래	31,238	1,698	29,380	160	—	825,713	352,373	381,369	91,971	—
교래	29,570	29,030	540	—	—	406,100	13,2000	392,900	—	—
장전	2,823	2,229	594	—	—	212,214	10,840	9,060	174,200	18,114
온평	3,162	1,880	320	962	—	2,350	320	550	580	900
무릉2	832	407	175	32	218	4,205	800	910	410	2,085
토산2	1,276	1,077	59	—	140	42,374	1,470	—	37,547	2,250
저지	1,576	790	286	100	400	26,980	5,480	11,000	9,500	1,000
동광	522	316	175	31	—	10,180	6,700	3,480	—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객수와 소득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4.13>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별	방문객수(명)				소득액(천원)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타	계	숙박	음식	농특산물 판매	체험프로 그램운영
		당일체험	숙박							
2007	70,999	37,427	31,529	1,285	758	1,530,116	391,120	799,269	314,208	24,349
2006	61,547	31,264	28,669	98	1,516	1,393,356	364,291	762,351	205,414	61,300
2005	61,178	30,022	27,506	110	3,540	1,462,713	339,750	849,571	241,858	31,534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하고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sup>29)</sup> '07년까지 87개소 지원, '08년 8개소 시설을 지원하며 개소당 5억원을 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하고 1개년 사업이다. 사업의 종류는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을 포함한다. 어촌의 대내외적인 어업여건 악화로 수산업생산보다는 체험·휴양관광 등 다원적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체험중심의 어촌관광 기반조성으로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도내의 어촌체험마을은 총 6개소가 있고 '07년 강정동, 보목이 구축완료되었고, '08년에 중문, 위미1리, 하예동이 구축 예정이며, 고산은 현재 지정된 상태이다.

## 2) 농어촌 테마마을 관련 행정조직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7년부터 각종 체험마을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담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산하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이며,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서는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마을종합지원 및 조정,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내 농어촌테마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9)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홈페이지 참조



<그림 4.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가꾸기 조직 현황

### 3) 농어촌 테마마을 사례지역 선정

농어촌 체험마을과 관련하여 각부처에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도내의 체험 마을들이 지정 초기 단계이거나 사업을 구상중인 경우가 많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지역에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농어촌 테마마을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례지역 선정을 위해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촌 마을 중에서 2곳, 농촌지역에서 2곳을 선정하여 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타지자체 6개 사례지역과 문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4개 마을을 진단하여 농어촌테마마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마을의 경우는 '07년에 지정되어 구축된 보복과 강정, 농촌마을의 경우는 교래마을과 신흥2리의 동백마을<sup>30)</sup>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0) 신흥2리 동백마을의 경우는 현재 농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 자발적인 동백마을가꾸기를 실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운동 일환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4.3 체험마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1) 보목마을 사례조사

##### (1) 일반현황

보목마을은 서귀포시 보목동에 위치하며 보목동은 2007년 말 기준 928 세대에 2,520명이 살고, 서귀포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4km 정도에 입지하고 있다. 보목마을 포구 동쪽에는 제기오름이 있고, 포구 앞 바다 1km 지점에는 천연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된 셀섬이 있다.



<그림 4.7> 마을 위치도 및 제기오름

마을의 주요 시설로는 어촌체험센터와 여드렛당, 공동화장실, 특산물로 자리돔이 유명하다. 또한 보말잡이 체험, 자리돔 체험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가 제공 가능하다. 셀섬은 바다 한 가운데에 난대림으로 덮인 섬으로 과거에는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고, 450종의 난대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제기오름은 자연관광지로서 보목동 마을 포구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구 앞 1km 지점에 위치한 쪼름과 마주보고 있는 오름이다. 보목마을은 2007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고, 자리돔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보말체험장 등은 운용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이다.



<그림 4.8> 섬섬과 문섬

## (2) 사업추진 현황

보목마을의 주요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보목자리돔 축제와 보말잡이가 있다. 자리돔 축제는 보목자리돔큰잔치추진위원회·보목어촌계·보목청년회에서 공동주최하며 매년 6월경에 개최된다. 자리돔을 소재로 한 자리돔 가요제, 자리돔 사생대회, 자리돔 어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요리 시식과 자리돔의 판매가 병행된다.



<그림 4.9> 자리돔축제 행사 현황(상), 테우체험과 모형 테우만들기(하)



<그림 4.10> 자리돔과 자리물회

또 다른 체험프로그램인 보말잡이는 년중 가능하며 특별한 도구없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야트막한 바다로 들어가 돌 틈에 붙어 있는 보말을 손으로 땟아 내기만 하면 된다. 바다생물의 습성도 배우고 직접 잡은 보말도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4.11> 보말체험장

### (3) 개발효과

자리돔축제는 자리돔을 소재로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로 보목항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열리고 있다. 축제기간 중에는 해상유람 및 해저탐방, 자리젓담그기, 사들(전통 자리돔 그물) 당김 시연, 테우젓기체험, 테우모형 만들기체험, 어탁체험, 자리돔 도전 한마당, 해변의 음악

회, 보말잡기 대회, 제주 민요한마당,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또한, 자리돔 강회, 물회, 무침, 구이, 젓갈 등 다양한 자리돔 요리가 제공된다. 자리돔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로서 인지도가 높고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리돔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촌체험프로그램으로 정립하여 연중 언제라도 활용가능하고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내의 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어촌계, 청년회와 추진위원회가 단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자리를 활용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접된 쇠소깍이라든지 제지기오름 등반 등 연계가능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 (4) 시사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자리를 주제로 체험과 테마마을을 꾸려나가는 것은 특색있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적이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 및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내의 특색있는 수산물을 소재로 하여 상품화를 도모하고 브랜드화하고 나아가서는 인접지역과의 체험행사의 연계 추진이나 상호보완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한다면 좋은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목마을의 축제와 쇠소깍을 연계 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한다면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목마을의 경우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고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것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량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에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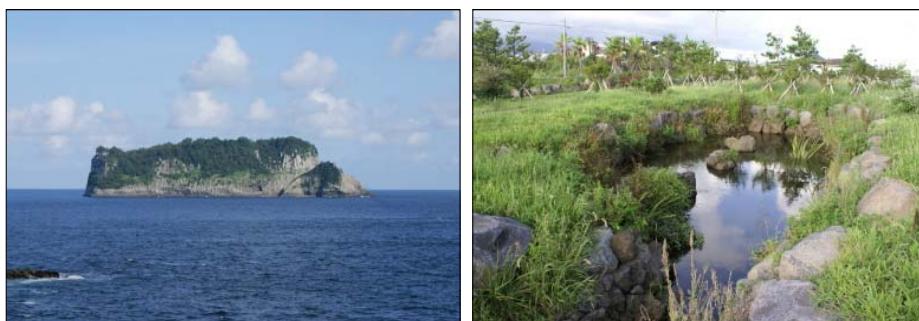
## 2) 강정마을 어촌체험마을 사례조사

### (1) 일반현황

강정마을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하며, 2007년 말 기준 강정동은 694 세대에 1,931명이 살고 있다. 마을 동쪽으로 법환과 서호, 서쪽으로는 월평과 도순마을이 인접하고, 유일한 부속 도서인 서건도가 해안가에 위치하며, 해산물과 어자원이 풍부하여 여름철 피서 및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방어항인 강정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가 조성중에 있다.



<그림 4.12> 마을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



<그림 4.13> 서건도 및 용천수

## (2) 주요시설

강정 어촌체험마을을 2007년에 지정되어 2008년 7월 현지조사시에 어촌체험마을관광안내소가 설치되고 있었다. 또한, 원체험장, 해변산책로는 이용가능하며 강정항에는 해산물직판장과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있다. 체험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바다낚시, 원체험, 보말잡이가 가능하다.



<그림 4.14> 어촌체험마을관광안내소 전경



<그림 4.15> 해산물직판장 및 작업장



<그림 4.16> 강정항 전경 및 소공원

### (3) 사업추진 현황

강정에 전통적인 고기잡이인 ‘원’이 있는데 ‘원’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으로 바닷가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제방처럼 담을 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하며, 이때 ‘원’을 만들기 위하여 쌓은 담을 ‘원담’이라고 부른다. ‘원’은 어촌계나 마을 등에서 공동어장으로 만들어 그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했다. ‘원’은 고기 및 보말잡이 등 체험어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를 보수하여 이용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자문을 통하여 전체를 복원·정비하였다. ‘원’은 관광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5년에 조성하였다. ‘원’은 다양한 어종이 원에 들어오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는 갇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그림 4.17> 원체험장과 보말

### (4) 시사점

강정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고 현재 체험마을안내시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의 프로그램이나 체험이 단순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어항인 강정항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어촌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교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례조사

#### (1) 일반현황

조천읍 교래리는 한라산 북동쪽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2007년말 현재 131가구에 30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산굼부리 분화구와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 삼다수 생수공장, 미니미니랜드, 돌문화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다. 특히 산굼부리는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되어 있고, 초원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우마(午馬)들을 볼 수 있고, 동남쪽에는 제동목장을 중심으로 목장과 오름, 넓은 임야 등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그림 4.18> 교래리 안내도(상) 마을전경·주민자치센터(하)

## (2) 사업추진현황

교래리는 2002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학습장 설치, 농사체험장 및 꽃길 조성을 실시하였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행정자치부)으로 선정되어 중복지정되어 있다. 종합복지회관 체험학습장에 두부만들기 체험장과 숙박시설을 건립했지만 실제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4.14> 교래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마을명	사업년도	사업비(백만원)	참여가구 /전체가구	주요사업내용	2007년도 방문객수	소득액 (천원)
교래	2002	200	50/132	학습장 설치, 농사체험장 및 꽃길 조성	29,570	406,100



<그림 4.19> 종합복지회관 및 체험학습장



<그림 4.20> 두부만들기 체험학습장 내부

### (3) 개발효과 및 시사점

교래리는 현재 토종닭을 소재로 한 음식점들이 27개소가 있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체험학습장과 같은 사업으로는 체험마을 활성화하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아름마을사업’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토종닭축제를 개최한바도 있고, 이를 지역축제와 체험마을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체험마을을 추진해 나갈 주체가 없고,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토종닭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마을내의 리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31)</sup> 테마마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없기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장을 만들다 보니 활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용도가 지정되어 나오는 지원금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다.

교래리의 경우에는 토종닭이라는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기에 마을 인근의 관광자원과 목장을 이용한 1박2일 코스의 주말체험형 목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바람직 할 것 같다.



<그림 4.21> 제동목장 진입로 및 표지판

---

31) 마을이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4) 신흥2리(동백마을) 농촌마을 사례조사

##### (1) 일반현황

서귀포시 남원읍 동쪽에 위치하며 표선면과 수망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의귀리, 남쪽은 신흥1리, 태흥3리와 인접해 있고 북동쪽에는 송천이 흐르고 있다. 2008년 현재 가구수는 200여 호에 인구는 600여명에 이른다. 마을의 전체면적은 1,542ha로 남원읍 면적의 8%를 차지한다. 임야가 많은 편이지만 감귤 과수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나무가 많아서 일명 ‘동백마을’이라고 하며, 동백마을은 설촌역사가 300년을 넘어섰고, 동백군락지는 제주도지방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4.22> 동백나무 식재 가로수 및 동백나무 열매



<그림 4.23> 동백나무 자생지 안내판 및 자생지

신흥2리 동백고장 보전연구회는 마을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며 자립형 제주특별자치마을만들기 위한 신흥2리 특별사업 기구로서 살기좋은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이다. 연구회는 참여사업을 통하여 행정 및 외부의 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마을자치경영을 목표로 제주 섬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마을공동체를 복원함과 동시에 제주의 역사 를 함축시켜 놓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살기좋은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32)</sup>



<그림 4.24> 동백마을 안내지도와 마을내 소로

## (2) 사업추진현황

살기좋은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감귤(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동백마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동백마을”을 브랜드화 하여 감귤 이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동백 숲의 확대 조성과 점진적인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등 삶의 질과 공간의

---

32) 운영원칙 제3조(연구회의 목적)

질을 높이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백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sup>33)</sup>



<그림 4.25> 동백열매와 동백보전연구회 현판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우선 아름다운 동백숲(군락지) 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과 서귀포시, 시민환경단체와 협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제27호 동백나무숲(군락지)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한다. 또한 동백숲을 남조로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진입로(수망리~신흥2리 등)를 비롯한 곳곳에 있는 소군락과 연계하여 확대 조성하고 있다. 둘째로 동백고장 보전 및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중장기 세부 보전계획에 의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참여형 분야별 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역할분담체계를 시스템화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자료 수집 등 연구 분석활동을 전개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화 한다.

셋째, 동백나무, 꽃, 열매의 자원화(이벤트 포함)로 경제성을 높인다. 동백, 감귤 등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집중연구 육성한다. “동백마을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 사업연구로 동백을 소재로 문화예술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운영한다.

---

33) 동백마을 소식지(창간호)의 내용에서 인용 및 소개한 것임



<그림 4.26> 동백마을 주민토론회 및 동백묘목 육종 모습

“감귤과 동백”을 활용한 상품화 전략으로 상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을 도모한다. “동백과 감귤, 4·3과 평화”를 아우르는 마을 박물관 만들기를 추진한다. 동백박물관은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마을, 동백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 만들기를 추진한다. 재래종 동백나무의 우수 묘목을 육성 생산하여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무료 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 (3) 개발효과

주민 소득원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동백마을의 효과적인 대내외 홍보(상품홍보)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마을내 정주 공간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동백을 매개체로 하여 마을 주민들간의 공동체의식 활성화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 구석구석에 대한 탐방을 마친 아이들이 그린 동백마을 지도를 살펴보면 동백마을의 주요자원이 동백임을 알 수 있었고, 동백을 테마로 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 알리기 교육 현황 및 동네 아이들일 함께 그린 동백마을 지도는 마을만들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그림 4.27> 동네 아이들이 그린 동백마을 지도

#### (4) 시사점

동백고장 보전연구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동백마을 가꾸기 사업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조직이나 외부에서의 자극이 아닌 마을내부의 자발적인 조직(동백고장 보전연구회)에 의해서 사업이 제안되고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 자문단의 도움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백을 테마로 주민들이 합심하여 가로수를 가꾸고, 마을내 자생조직인 보전연구회를 중심으로 마을가꾸기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마을만들기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사례로서 제시해주고 있어 본보기로 삼을만 하다.



<그림 4.28> 마을내 체육공원 모습

#### 4.4 종합 평가

##### 1) 분야별 평가

농어촌 테마마을 현지조사를 위해서 어촌마을 2개, 농촌마을 2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우선 테마마을 구상과 관련하여 어촌체험마을의 경우는 두곳 모두 현재 시작단계라서 아직까지 체험마을이 정착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내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화되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처가 어렵다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체와의 협동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효과의 경우 어촌 테마마을의 경우 현재 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단계이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경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둔다면 지역주민간의 단합된 모습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지역주민의 단합된 공동체의식이 먼저 조성되고 체험마을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체험마을 지정이나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은 체험마을은 지속성과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촌마을 2곳의 경우는 상대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래리의 경우는 지역자원과 축제의 소재가 될 만 것이 있어 쉽게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높고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테마마을을 추진할 추진주체 구성이 어렵고, 추진주체 구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동백마을은 지역자원이 많은 타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을내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동백을 소재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백을 소재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 2) 발전방향

도내의 4개 마을을 토대로 농어촌 테마마을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적으로 주민주도형 추진주체의 구성(마을가꾸기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마을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마을자원을 활용한 연계자원의 개발 및 프로그램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어촌테마마을인 경우 현재 시작단계로서 아직까지 체험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체험개발 및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며, 이러한 작업의 시초는 주민참여형 개발의지가 우선이며 관의 지원, 마을가꾸기 전문가들의 자문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테마마을들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거듭나고 정착되어 나아가 공동체의식 회복

으로 이어져야 할것이며, 소득창출은 그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창출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례들이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았고, 테마마을이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4.15> 사례지역 주요자원 및 발전방향

주테마 및 자원	발전방향
보목마을 자리돔, 보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주도형 추진주체의 구성(마을가꾸기 전문가들의 지원)</li> <li>-지역내의 자원뿐만 아니라 연계자원의 개발</li> <li>-테우체험 등을 연중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구</li> <li>-바다를 활용한 해양레포츠 체험 시도(스킨스쿠버 등)</li> <li>-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시킴-예)배을 가진 분은 해양스포츠나 낚시등에 참여하고, 노약자는 안내 및 홍보, 젊은사람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꾸려 나감)</li> </ul>
강정마을 원, 해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주도형 추진주체의 구성(마을가꾸기 전문가들의 지원)</li> <li>-원체험의 활성화(연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정비)</li> <li>-인접지역과의 연계개발 도모</li> <li>-바다를 활용한 해양레포츠 체험 시도(스킨스쿠버 등)</li> <li>-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시킴-예)배을 가진 분은 해양스포츠나 낚시 등에 참여하고, 노약자는 안내 및 홍보, 젊은사람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꾸려 나감))</li> </ul>
교래마을 토종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주민에 의한 토종닭판매상가의 공동홍보 및 브랜드화</li> <li>-주민주도형 토종닭 축제(먹거리, 볼거리, 행사진행 등)</li> <li>-개선된 광역교통여건을 활용하여 먹거리촌으로 개발</li> <li>-교래리 토종닭의 명품화(품질, 홍보 등)</li> <li>-마을과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주말체류형 프로그램 실시</li> <li>-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시킴-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li> </ul>
동백마을 동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백마을 출향인사 톤커밍동백축제 개최</li> <li>-동백마을 모든 가로수의 동백나무로 교체</li> <li>-묘목생산 및 동백가공품 생산</li> <li>-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시킴-동백을 소재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회복되고 살기좋은 마을로 회귀하는 사례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li> </ul>

## 5.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 5.1 농어촌체험마을의 개선방안

#### 1) 농어촌체험마을의 개선방안

농어촌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마을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초기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조성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거나 차별성이 없이 추진되는 등 농촌마을사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의 경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체험마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공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성공요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타 문현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관광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적·제도적 측면, 운영 및 관리 측면, 마을단위 측면에서 각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농촌마을개발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마을개발사업(인프라구축으로 정주기반 확보)과 체험관광사업(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2.1>에 정리되어 있다. 이 중 관광관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을 포함하여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인하여 사업의 중복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사하게 추진되는 농촌관광사업은 중복투자,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 일회성, 행정지원 및 행정일원화 미비로 인한 신속한 대응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사업내용·유형별로 조정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MB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사업이 통합되어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통합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농촌체험마을 성공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마을관련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도단위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실무협의회’가 마을만들기를 총괄기획 및 기획하고자 제도화되어 있다.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마을만들기 대상마을 선정시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및 협의,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협조사항 및 정보공유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와 지속적인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동소이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중복으로 인한 복잡화를 일원화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 강화 및 행정의 일원화와 신속한 대응을 들 수 있다.

개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추진은 체험마을 지정 등을 위한 일회성·단기적 추진보다는 향후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지속적·장기적인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지정에

주안점을 두며, 그 지원도 1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마을에서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조사해보면 우수지역이 실패한 사례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마을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을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정보다는 관리에 더욱 주안점을 둘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의 문제점은 농촌관광이 마을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지정 및 운영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마을지정에서는 지역 및 권역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마을단위의 지정으로 인접 마을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지정되거나, 각 마을의 사업내용이 특성화되지 못하거나 차별성이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체 농촌관광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촌관광 관련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은 농수산물이나 농어업 체험 등 지역자원 또는 향토자원의 활용이 대부분이어서 인접지역 간에는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어촌테마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은 권역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권역별 접근방안을 강화하여 권역별 특성화를 추구하고, 내부적으로 마을별 특성화 및 차별화를 추구하는 기반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인접 마을

간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을 권역별로 전환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체험마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윤유식(2007)의 연구에서 농촌관광마을을 찾는 이유와 방문시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관광마을을 찾는 이유는 환경이 깨끗하다 등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은 건강관리나 자연생태체험 등 체험웰빙을 지향하고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과 레저스포츠 등의 활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질문에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는 21개 항목 중 13위, 후자의 질문에는 농사체험이 11개 문항 중 11위로 나타나 실제 농사체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한번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에서 농어촌 체험보다는 자연환경이나 웰빙체험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의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문 후 만족도 조사에서 지역볼거리 안내책자, 특산물의 다양성, 시설기구가 갖춰진 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았다.<sup>34)</sup>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방향이 농어촌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농촌관광은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새로운 체험과 지역

---

34) 윤유식(2007), 앞의 책, pp.32-35

특산물, 개선된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험마을의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화를 통한 선택인지도 강화 및 만족도 향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데이트베이스화하여 이를 다양한 농촌관광 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의 어메니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핵심 어메니티를 찾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체험프로그램 및 기존이 체험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타지역 사람들 이 참여하고 지역민과의 교류가 가능한 체험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강화이다. 농촌관광에서 농촌체험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농촌관광을 성공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구축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체험을 위해서 농촌지역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웰빙, 레포츠 등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을단위의 사업에서는 지나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당 1~2개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농촌관광에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도시 나 기업, 아파트단지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출향인사의 고향방문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도시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 씨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방문 기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활성화되면 이를 농촌관광의 잠재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

근은 1차적으로 지역별(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를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는 마을별로 출향인사 고향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체험시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민들이 1~2박정도 체류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 깨끗한 숙소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주변의 온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주간에 체험으로 땀을 흘리고 야간에는 온천이나 목욕을 하며 농촌마을의 평화롭고 한적함을 느낀다면 더욱 더 기억남는 추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관련 사업 중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지역(마을)의 지도자(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또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리더교육을 통한 리더쉽의 함량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일률적이며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은 리더의 기본 역량의 차이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리더 교육은 리더의 역량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3) 체험마을단위에서의 개선방안

농촌관광은 체험마을을 비롯하여 대부분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단위의 사업은 관광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단

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주로 시설중심의 하드웨어부문과 프로그램 중심의 소프트웨어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는 숙박시설 확충, 휴식공간 조성, 주차시설 확충, 진입로 등의 정비 등이 있다. 이것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 시설이며 체험마을의 공간 개선이 된다.

농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숙박시설은 대부분 민박에 의존하고 있다. 숙박 시설의 정비는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마을의 각종 시설이용 및 특산물 판매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숙박시설을 새롭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를 통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숙박시설이외에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규모 관광지에서 부족한 것은 휴식공간이다. 체험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대기, 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다양하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쌈지공원, 마을공동공간의 정자주변 쉼터 등이 요구된다.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단체 체험관광객을 위해서 대형차량의 주차장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가의 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자기집앞 주차로 인해서 마을안길이 혼잡하므로 마을내 공동공간에 마을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마을 안길내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의 진입로 등에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나타낼 수 있는 조각이나 꽃길 등을 조성하여 체험관광객에게 체험마을을 사전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의 질을 높여 관광지로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현재와 같이 하드웨어(마을회관, 진입로, 마을경관 조성 등)적

인 기반시설 위주에서 소프트웨어(체험프로그램, 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연계, 특산물 직판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적극적인 홍보정책 및 방안 마련, 지역 간 연계사업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체험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편성하도록 하되,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인접 마을에 유사한 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접 마을간에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생을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을내에서 어촌의 경우는 육상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인 경우는 하천 또는 산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을내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하여 전시시설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을 특산물 직판장, 향토음식 전문화 등을 통하여 지역적 차별화를 꾀하며, 지역자원에서의 기념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증대를 꾀할 수도 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의 판매나 음식판매를 통하여 체험관광객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험활동 이외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함으로써 체험관광객에게 체험에 대한 추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현재 마을단위 사업을 권역단위까지 확대함으로서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마을단위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권역으로 확대하면 마을별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주요 시설의 정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또한 홍보 등의

공동 추진이 가능해져 비용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라 홍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체험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체험프로그램에 따라 유치 대상(target)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권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 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 5.2 정책제언

제주지역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된 개선방안 중 하드웨어적·소프트웨어적 부문을 충분히 마련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관광의 한 부문으로서 농촌관광을 다루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관광지로서 타 국가 및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농촌관광은 새로운 관광경험으로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 위주로 추진되어 온 제주관광에 농촌관광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농어촌체험관광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역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여야 한다. 부래미마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일 마을단위에서의 사업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별 특성화사업과 권역별 사업추진계획을

동시에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만의 농어촌 권역개발을 새로이 수립하여 농어촌 체험관광<sup>35)</sup>이 새로운 관광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 한 개의 농어촌테마마을만으로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농어촌테마마을의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다.

셋째, 마을단위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자생적인 관광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은 마을단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을별 기반구축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체험마을이 관광지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공적인 농촌마을의 경우는 적극적이며 열성적인 마을의 리더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리더가 없다면 단기적·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절박한 위기의식에 기인한 마을 가꾸기의 시작에 의해서 마을가꾸기가 시도(예:신흥2리 동백마을)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농어촌테마마을을 운용하고 추진해나가는 추진주체도 꼭 필요하며, 주민들간의 단합과 타협을 통한 마을가꾸기 만이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농촌관광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농촌관광의 확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농어촌 체험마을 등은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실패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관리 및 운영에서 평가

---

35)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 중인 '마을가꾸기 사업'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크며, 농어촌테마마을의 성공적인 추진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지속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마을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현실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여섯째, 도에서 운용적인 ‘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 실무협의회’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한다면 전국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농촌관광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idea),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고(infra), 차별화·특성화(identity)하는 3I(initiative)에 집중되어 추진되어온 농촌관광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810개 마을이 이미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농촌관광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성공요소 3C(complete)의 도입과 철저한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C는 콘텐츠(contents), 커뮤니티(community), 수익(commerce)으로서 내용과 연계, 소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3C의 확충과 내실화를 통하여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C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면, 기존의 지역차원 또는 전국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농촌관광을 국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촌관광의 국제화는 차별화된 매력(attractiveness) 창출, 상품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시설과 서비스의 국제화, 시스템의

국제화, 시장의 국제화, 브랜드의 국제화가 있다(강신겸; 2007).

제주지역의 농어촌 체험마을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이 가지는 지역 내 한계(시장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제화는 매우 절실하다. 가장 제주적인 지역자산을 토대로 체험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장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농촌관광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3C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콘텐츠와 커뮤니티, 그리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서 농촌관광이 다루어질 때 제주지역의 농촌관광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국제화는 제주지역의 한정된 관광 자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고선영(2006), 장소자산에 기반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권용덕(2008.1), 농촌지역개발투자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남발전 제90호, 경남발전연구원
3. 김영준(2007),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 (Ⅱ),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4. 서정호(2006),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16집 2호, pp.89-116
5.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 송미령 외(2006.12), 농촌 지역혁신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신정숙(2006), 농촌전통테마마을 경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 마을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윤유식(2007), 강원도 지역 농촌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을 방  
문객 특성 및 선호도분석, 강원발전연구원
9. 이동필 외(2006.12),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지경배(2006), 강원도 농촌어메니티 자원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강원  
발전연구원
11. 이승형(2006),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 전북발전연구원
12. 충남발전연구원(2005),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체험프로그램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13. 하동군(2006), 대도마을 도서특화시범사업 기본계획
14. 남해군(2007), 가천 다랑이논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이 성용(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하 창현(도시공학박사, 진주산업대학 강사)

## 농어촌 테마마을 활성화 방안

인쇄일 2008. 7.

발행일 2008. 7.

발행인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삼화상사인쇄소(☎753-2018)

ISBN 978-89-6010-053-4 935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